Life p/16



집에서 장보는 주부 늘었다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제3123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성탄절 극장가 어디를 갈까



어린이산타들의 축하공연 "메리 크리스마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4 KFA 시상식'에서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리없는 강자' 알뜰폰… 속도 낸다

점유율 작년 4.5%서 올 7.6%… 450만명 육박
LTE가입자 늘고 우체국사업자도 10곳으로

올해 급성장세를 보인 알뜰폰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의 전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10월 현재 7.6%(431만5274명)다. 지난해 4.5%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새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자는 5249만5036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1만2647명 줄었다. 기업별로 SK텔레콤이 6만793명, KT가 4만2908명, LG유플러스가 8946명 각각 감소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매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월에는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450만 가입자를 손쉽게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는 연말을 맞아 단말기 지원금 확대, 반값 통신요금제를 앞세워 가입자 확대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선불형 가입자가 많았던 업체들도 이젠 안정적 수익구조인 후불형 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최근엔 LTE 가입자도 늘고 있다. 올해 1월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LTE 가입자 비율은 4.8%에 그쳤으나 11월 말 8%까지 늘었다. 2G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1월 10.8%에서 11월 현재 6.3%까지 줄었다.

이젠 '알뜰폰=2G폰'이라는 공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알뜰폰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점이 오히려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알뜰폰은 그동안 싸고 질낮은 서비스, 기존 이통3사와 달리 '싼 게 비지떡'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는 우체국 알뜰폰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우체국 알뜰폰은 어느새 가입자 16만명을 넘어섰다. 비록 작은 규모이나 알뜰폰의 유통망 확대, 소비자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이 시장 성장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현재 6곳인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10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업체 간 경쟁과 함께 다양한 요금제, 서비스 확대로 내년에도 우체국 알뜰폰이 전체 알뜰폰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3사 자회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것도 올해보다 내년 알뜰폰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다. 물론 이통3사를 비롯한 대기업 계열사의 잇따른 알뜰폰 시장 진출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통3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올 한해 단통법 시행, 이통3사 보조금 대란, 통신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알뜰폰은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내년에는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 단말기 라인업을 앞세워 LTE·후불형 가입자 확대로 수익구조 안정화와 브랜드 인식 변화를 통해 급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조현아 오늘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40·여)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도 이날 조사관 중 1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대화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군인·사학연금 손 안댄다

새누리당 개혁 방침 반발… 정부 "공무원연금 집중"

정부는 23일 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 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 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뼈대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정치권 싸움에 또 묻힌 합산규제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정치권의 싸움에 올해도 방송통신업계에 산적한 각종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유료방송업계 최대 이슈인 합산규제 법안이 또다시 해를 넘겼다. 올해에만 수차례 국회에서 논의된 합산규제 법안은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엉뚱한 곳에서 펼쳐진 여야 간 갈등으로 끝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결국 정치권의 싸움에 합산규제가 해를 넘기면서 반(反)KT 진영(케이블업계·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허탈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KT에 법안 자체를 무효화 시킬 빌미를 제공했다"며 "방송산업은 균형이 필요한데 독점체제로 갈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시장점유율 28%를 넘어선 KT는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사실상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법안 무효화에 적극적이어서 내년에도 법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클라우드 발전법 역시 마찬가지다. 연내 국회 통과가 당연시됐던 클라우드 발전법은 올해 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이 같은 문제를 수정, 개정안을 내놨지만 또다시 해당 법안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올 한해 방송통신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이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정치권의 다툼으로 뒷전에 밀린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업계도 국민들도 허망함을 나타냈다. 과연 정치권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라!



이주영 장관과 함께 이동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완공식을 마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개각 가능성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개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문건 유출 파문 등 여파로 멈춰선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며 지금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된 뒤 이후 수차례 표명된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른 각료들의 분발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 여부도 주목된다. 시기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총리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로 유임된 정홍원 총리의 후임을 물색해왔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중진과 친박계 원로급 인사, 개혁적 외부 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유지

● 국방부는 연말에 발행되는 '2014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2014 국방백서에 유지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국회도서관장에 이은철 교수 추천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도서관장 후보자로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2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6명의 후보군 중 지원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대상으로 집단 토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이 교수를 추천했다.

'朴 대통령 악성 루머' 유포범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글 8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 '부동산 3법' 등 처리 합의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6개 보 누수… 보강해야"

4대강 조사위 16곳 중 9곳 점검… 수질도 악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는 정부가 안전·수질악화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로 지난 1년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조사위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누수가 확인된 6개 보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이다.

이날 평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인 2008~2009년과 2012~2013년의 4대강 수질을 비교한 결과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조류농도(Chl-a)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수질이 다소 악화됐다.

평가위는 이와 관련,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고 조류농도 증가는 BOD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얼음 남긴 채 입항하는 최영함 임관을 앞둔 69기 해사 생도를 태우고 96일간 11개국, 11개 항을 방문하는 등 순항훈련을 마친 4400t급 구축함인 최영함이 23일 경남 해군 진해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최영함은 지난 18일 마지막 기착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할 때 선체 대부분이 얼음에 뒤덮여 있을 때 모습처럼 함교 앞과 127㎜ 함포 위가 여전히 꽁꽁 언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연합뉴스

"내년 1분기 기온 평년보다 높아"

내년 1~3월에는 기온이 지난 30년간 평균값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15년 1~3월 예보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간혹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평균기온 영하 1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다. 강수량도 평년(28.3㎜)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대륙고기압이 점차 약화되면서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 날씨가 점차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은 평년(평균기온 1.1도)보다 높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강수량은 평년(35.5㎜)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 변화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평균기온 5.9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56.4㎜)과 비슷하겠다. /유주영기자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편 방향·원칙 합의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왼쪽부터 순서대로)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도면 유출범 IP 다수 확보

5번째 자료 인터넷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아 사용한 IP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또한 이날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자료가 또다시 트위터에 공개돼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합수단은 전날 H사 등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2곳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 범인 추정 인물이 원전 도면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데 쓴 국내 IP 몇 곳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자료가 또다시 인터넷에 공개됐다.

지난 15일, 18일, 19일, 21일에 이어 5번째다.

한수원 도면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23일 오후 3시께 트위터에 또다시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원전 도면 등이 담긴 4개의 압축파일과 원전 기술을 설명한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공개했다.

4개의 압축파일에는 고리 1, 2호기와 월성 3, 4호기의 도면으로 보이는 파일이 담겼다.

또 "우리는 국민을 사랑하는 원전반대그룹이다. 국민 여러분, 원전에서 빨리 피하세요. 12월 9일을 역사에 남도록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수원 박인식 실장은 이날 오후 3시26분께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위터에 공개된 파일을) 아직 (여파가)무서워서 열어보지 못했다"며 "사이버 보안팀이 곧 이를 열어보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날 3시35분께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유주영기자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유주영기자

'KB비리' 임영록 소환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 갖고 있었다. /유주영기자

지하철 5~8호선 휴지통 사라진다

지하철 5~8호선에서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 내 휴지통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남자화장실은 이달부터, 여자화장실은 내년 2월 중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실 칸에 있던 휴지통은 사라지고 세면대 옆에만 휴지통을 비치한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여성 위생용품은 에티켓 통에, 그 밖의 쓰레기는 세면대 옆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유주영기자



모스크바 '산타 마라톤' 불우아동 돕기 자선행사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참새언덕 근처에 수백 명의 산타를 로스가 나타났다. 불우아동을 위한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드미트리 사비츠키는 "마라톤 대회는 모스크바 '베라' 복지 기금이 후원하는 자선 행사"라며 "대회의 수익금은 불우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꼬마 산타에서부터 할아버지 산타, 아주머니 산타, 할머니 산타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모인 산타 500명은 참가비로 600루블(약 1만2000원)씩 냈다.

참가자 알렉세이(39)는 "아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다"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어 선뜻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5km 구간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들과 함께 천천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Дедушки вышли на пробежку

사비츠키는 행사장에 모인 산타 500명 이외에 '게으른 산타'도 300명 있었다고 했다. 마라톤을 하기는 싫지만 불우아동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300루블씩 기부했다는 설명이다.

남자 성인 부문 마라톤 대회 우승자 막심 사도브스키는 "불우아동을 위한 산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대회 신청을 결심했다"며 "여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오래된 건물 개조해 예술가들에게

metro Brazil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상파울루시는 1910년에 지어진 호텔 건물을 개조, 퇴직자 및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건물로 탈바꿈했다. 대상은 60세 이상 및 저소득층 예술가들이며 건물의 50개 방을 제공 중이다.


Prefeitura de São Paulo transforma abandonados em moradias popular

월세로 한달 소득의 10~12%를 지불해야 하며 계약은 4년마다 갱신된다. 이 건물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 기능할 예정이다.

페냐 마리아(74·가수)는 제공받게 될 방을 둘러보는 동안 "말이 안나올 정도다. 내 꿈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다"라며 감탄했다.

리모델링 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돼 이번 달 초에 완공되었으며 약 820만 헤알(33억9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정리=정지연 인턴기자

미국 보복공격일까 반북단체 행동일까

북한 인터넷 10시간 불통

북한 인터넷이 완전 다운됐다 10시간여 만에 정상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AP·AFP 등 외신은 23일 오전 1시부터 완전 다운돼 접속되지 않았던 북한의 인터넷이 오전 11시 40분께 정상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모두 접속이 다시 원활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북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인터넷 완전 불통이 미국의 보복 공격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을 겨냥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사이버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률이 저조한 북한의 특징상 사이버 공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북 극우단체나 해커집단이 주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는 지난 4월 대남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6·25 '정전협정 기념일' 등에 북한 웹사이트를 일시 마비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계속해왔다.

한편 몇몇 미국 독립 영화관이 소니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내용으로 다뤘다가 테러 위협으로 상영을 포기한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텍사스주의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 관계자는 "하루 특별 상영과 일반 상영을 두고 고심 중"이라며 "중요한 점은 독립영화관들이 '인터뷰'를 틀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시드니 인질극 희생자 '하얀' 장례식 지난 1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인질극 발생 당시 사망한 토리 존슨(34)의 관을 유가족과 장례 관계자들이 영구차로 옮기고 있다. /AP 연합뉴스



다리 그만 벌리고 앉으세요!

뉴욕 지하철 '쩍벌남' 퇴치 캠페인 눈길

미국 뉴욕시 교통 당국이 22일(현지시간) '쩍벌남 퇴치'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쩍벌남이란 지하철 의자에서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 2~3개의 좌석을 독차지하는 남자 승객을 말한다.

교통 당국은 출·퇴근 교통혼잡 시간대 지하철에서 쩍벌남 때문에 불편하다는 승객들의 불만사항을 접수, 이같은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 시내를 오가는 각 지하철 노선의 객차 안에는 '쩍벌남 퇴치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다. 포스터에는 '이봐요. 아저씨. 다리 좀 그만 벌리세요. 앉을 공간이 좁아지잖아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다른 포스터에는 '매너를 지키면 지하철 탑승이 훨씬 쾌적해집니다'라고 적혀 있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에 약 600만 명이 이용한다. 승객들의 탑승 예절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일부 여성운동가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쩍벌남의 적나라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교통 당국은 "이번 캠페인으로 승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며 "쩍벌남뿐만 아니라 부피가 지나치게 큰 배낭을 메고 타는 것도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며 지하철 탑승 예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선미기자

회사 분석·직무 경험으로 취업문 뚫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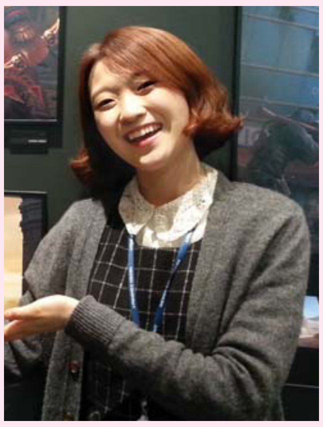
1년차 신입 4인방 조언

회사 분석과 직무 경험으로 취업문을 뚫어라.

취업 전쟁터에서 갓 살아 남은 1년차 신입사원들의 조언이다. 구직자들이 신봉하는 스펙도 지원 기업과 직무 궁합이 맞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물산과 영업이란 키워드로 결국 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말이다.

게임기업 넥슨 '아틀란티카'팀 조가경(25)씨는 올해 하반기 공채 기획자로 입사했다. 공채 동기 26명 중 기획 직군은 단 3명이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비결은 '넥슨 한우물 파기'와 '게임 기획 경험'이었다. 조씨는 2012년 넥슨 기자단 활동을 시작으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참가, 최근까지 넥슨 '카트라이더'팀 장기 인턴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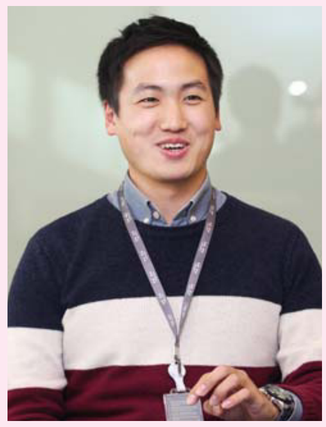
서류전형의 문턱을 넘기 위해 조씨는 넥슨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기획안을 상담받고, 인턴시절 만난 선배들로부터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았다. 조씨는 "하반기 공채에서 넥슨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직군을 정해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넥슨 '아틀란티카'팀의 조가경(25)



금양인터내셔날의 박연지(27)



NHN엔터테인먼트의 이창훈(27)



NHN엔터테인먼트의 손창원(29)

묻지마 지원 대신 한우물 파야
스펙도 직무 궁합 맞아야 효력

면접은 직무 평가 중심이었다. 조씨는 "카트라이더 수능 이벤트를 기획하란 질문에서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시험지가 나오는 아이디어를 냈다. 카트라이더 이용자들이 속도 위주 플레이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아이템 쪽으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평소 넥슨 게임을 두루 익힌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와인수입회사 금양인터내셔날 하반기 입사자 박연지(27)씨는 와인 공부와 홍보 직무로 취업문을 뚫은 사례다. 박씨는 "홍보대행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식음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앞으로 와인 시장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와인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목표를 세워 이 직군만 세밀하게 준비했다.

박씨는 "와인업계는 공채가 드물어 평상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입사 동기 중에 소믈리에 출신이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는 구체적으로 했다. 자기소개서에 '나는 실전형 인재입니다'라고 쓰는 대신 '인턴시절 가장 먼저 출근해서 주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고 표현하는 식이었다. 그는 "홍보팀 막내가 주로 하는 일이 뉴스를 챙기는 것이라 이 점을 부각시켰다. 자연스럽게 성실함과 업무연관 경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입사하려는 회사에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면접자로서 기본 자세"라며 "덕분에 '우리 회사 연혁과 인지도를 말하시오'란 질문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업문화 적응도 중요

한편 회사가 자신과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문화 적응이 근속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회사에 오래 다닐 인재를 선호한다.

NHN엔터테인먼트 상반기 공채 출신인 이창훈(27)·손창원(29) 공통웹개발팀 사원은 직장 체험 전형인 '필 더 토스트'가 합격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창훈씨는 "하루동안 선배들과 근무를 하면서 코딩 시험과 면접을 치르는 전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회사에 입사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손창원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후 합격·불합격과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준 점이 특히 감동이었다"고 밝혔다.

실무 평가가 끝난 후 이씨는 '자료구조 이해가 우수하지만 코딩 훈련이 더 요구된다'는 피드백을, 손씨는 '실무 투입될 정도로 경험이 많지만 기초 알고리즘 공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두 사람은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합격증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취업은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얼마나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회사와 궁합이 맞는지 경험해야 취업 성공률과 근무 만족도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판교=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3D 프린팅 신기하네 23일 서울 송파구 송파공고에서 열린 3D 프린팅 산업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4050도 클릭하면 취업문 환히…

전경련 온라인 채용장터

중장년 구직자들이 클릭 한번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채용장터가 열린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23일 대기업 협력사, 수출기업, 시간제 일자리 등 323개 중소·중견기업이 1280명의 중장년 경력직을 뽑는 '2014년 중장년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중장년 일자리, 클릭 한 번으로 잡(Job)아라!'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전경련, 무역협회, 파인드잡이 손을 잡았다.

우량중소기업 144개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중소기업 179개사 등 총 323개사가 유통·서비스직 917명, 생산·품질직 202명, 사무관리직 71명, 영업직 50명, 연구·기술직 40명 등 총 1280명의 중장년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전경련 중장년 온라인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http://fki.findjob.co.kr)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채용 비수기 취업 필승전략

구직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취업한파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이 공개됐다.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은 비수기 취업 전략을 'C.O.L.D' 키워드에 맞춰 정리했다.

◆Check yourself(자기 진단은 필수)=스스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 목표 기업,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기업과 업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ccasional Recruitment(수시 채용을 노려라)=채용 비수기에는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목표 기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서 공고가 뜨면 바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이력서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취업사이트 인재 검색을 통해 이력서를 열람하고 면접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Liberal arts(인문학 역량을 키워라)=올해 채용 트렌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인문학적 소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하반기 인적성검사에서 '몽골과 로마제국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현대차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서술하라는 에세이 문제를 냈다. 삼성그룹은 상식 영역에 인문학적 지식 문항을 확대했다. 평소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 스터디 등을 통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Delight(즐겁게 지내라)=앞날이 막막하다고 우울해하는 것은 오히려 취업 의욕을 떨어트린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함께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를 만나 위안을 받거나, 취업한 선배에게 조언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국명기자 kmlee@

market index <23일>

- 코스피 1939.02 (−4.10)
- 코스닥 534.65 (−2.13)
- 금리(국고채 3년) 2.16 (변동없음)
- 환율(원·달러) 1101.30 (+5.00)

뉴스&뉴스



방울 양배추로 만든 이색트리 2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식품관 농산물 코너에서 모델들이 방울양배추를 이용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최고의 BJ는 누구?

●아프리카TV는 올해 4번째로 열리는 '2014 아프리카TV BJ페스티벌'을 23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시청자 투표와 방송 데이터 합산,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대상 △신인상 △스타 BJ 등 각 부문별 BJ 총 60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상금 규모는 1억2000만원이다.

시상식에는 게임, 스포츠, 먹방(먹는방송), 공방(공부방송) 등 각 분야별 인기 BJ들이 총 출동하며 △대도서관 △육댕 △버블디아 등 인기 BJ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 무대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시상식 모습은 BJ페스티벌 특별 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11월 어음부도율 최저

●어음부도율이 1년 만에 처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12%로 전월(0.19%)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11월의 0.12% 이후 최저치다.

어음부도율은 STX와 동양 사태의 여진으로 지난 8월에는 3년4개월 만의 최고치인 0.28%로 치솟기도 했다.

부도업체 수는 10월 72개에서 지난달 61개로 감소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 메모리사업부 '세계 최초' 행진

'3비트 V낸드' 기반 소비자용 SSD 출시
'20나노 8기가비트 모바일 D램'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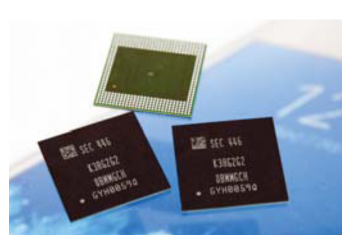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축적된 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PC와 모바일 메모리 제품 성능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D램의 20나노 시대를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처음으로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8기가비트(Gb) LPDDR4(Low Power Double Data Rate 4)' 모바일 D램을 양산하며 '4기가바이트(GB) 모바일 D램 시대'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20나노 8Gb LPDDR4 모바일 D램은 1GB 칩 4개로 모바일 D램 최대 용량인 4GB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 LPDDR3 제품보다 2배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소비전력을 최대 40% 절감할 수 있다.

8기가비트 LPDDR4는 독자 개발한 LVSTL 기술로 일반 PC D램(1600Mb/s) 보다 2배 빠른 3200Mb/s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초고화질(UHD)급의 동영상과 2000만화소 이상의 초고화질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한 차원 높은 '초고속, 초절전, 고용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기술력으로 삼성전자의 내년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뿐만



20나노 8기가비트(Gb) LPDDR4 기반 4GB 모바일 D램

아니라 애플 아이폰 등 유명 스마트폰에 쓰일 차세대 '초고속 초절전 고용량' 모바일 D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애플 등 글로벌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의 하이엔드 제품 출시에 맞춰 2기가·3기가바이트 LPDDR4 D램을 동시에 공급해온 삼성전자는 내년 4기가바이트 LPDDR4 D램을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뿐만아니라 PC 분야에서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3차원 V낸드를 활용한 소비자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를 선보였다. 현재 3비트(TLC) V낸드 기반의 소비자용 SSD '850 에보(EVO)'를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등 53개국에서 출시했다. 이에 따라 게임용 PC와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소비자용 SSD 시장이 V낸드 체제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TLC V낸드를 활용해 저장용량은 1.5배 늘렸으며, 초당 연속 쓰기 속도는 520MB, 읽기 속도는 540MB로 최고 수준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 2015'에서 '4GB LPDDR4 모바일 D램'으로 혁신상을 수상, 메모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모바일D램으로 3년 연속 혁신상을 받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첫 1400원대 주유소 등장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600원대에 진입했다.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판에 휘발유가격이 1497원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세계 184번째 부자

제일모직·삼성SDS 상장 대박으로 순위 뛰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글로벌 부호 200위'에 처음 진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SDS가 최근 성공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까닭이다.

23일 다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지난 19일 기준 이 부회장의 재산은 71억 달러(7조7800억원)로 세계 184위다.

지난 9월 이 부회장의 순위는 360위권이었다.

이 부회장의 재산 순위가 석달 만에 껑충 뛴 것은 지난달 삼성SDS가 상장하면서다.



삼성SDS의 주가는 상장 첫날 급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 공모가(19만원)의 배가 넘는 42만8000원(지난달 25일)까지 올랐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8일 상장한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의 순위를 더 끌어올렸다.

제일모직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배가 넘는 11만3000원(6.60%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23.24%.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은 129억달러(14조13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79위에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순위는 200위권 밖이다.

세계 1위 부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869억 달러·95조220억원)였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744억 달러·81조5200억원)과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714억 달러·78조24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박성훈기자 zen@

3.3㎡당 2000만원
고가전세 1년 새 2배↑

전세 선호 현상으로 주택 구매력이 있음에도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3.3㎡당 2000만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만2968가구의 아파트가 3.3㎡당 평균 전세가 2000만원을 넘겼다. 지난해 1만4736가구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모두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서도 2013년 강남·서초·송파구에만 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 전세아파트가 존재했지만 올 들어 성동·양천·용산·중구 등이 추가됐다.

이 중 강남구는 2013년 5074가구에서 2014년 1만6354가구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3.3㎡당 2000만원이 넘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역삼동이 4521가구로 가장 많고, ▲도곡동 3767가구 ▲대치동 3683가구 ▲삼성동 3360가구 ▲청담동 102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역삼동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 사이의 단지 대부분이 해당됐다.

서초구는 9525가구로 조사됐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 대단지 새 아파트가 집중된 반포동이 7114가구에 달했다. 특히 단지 인근 외국인학교 영향으로 선호도가 높은 래미안퍼스티지 공급면적 113㎡와 114㎡의 전세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겼다.

송파구에서 3.3㎡당 전세가 2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6723가구로 모두 잠실동에 있다.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이 이들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안전한 산업현장, 행복한 대한민국 4대 필수안전수칙이 만들어 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그 출발은 안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을 실천할 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 4대 필수안전수칙에서 시작됩니다.

- **보호구 지급·착용**: 기계 · 설비 등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 착용
- **안전보건 표지부착**: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 · 설비 · 작업별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 **안전보건 교육실시**: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정비, 보수 등의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 제정 및 확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유도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한화생명 출신 '러브콜' 쇄도

오익환·김종열씨 등 대거 중용 눈길

최근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출신이 보험업계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한화생명의 시스템과 노하우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우리아비바생명 대표이사 사장에 오익환 전 한화생명 리스크관리 실장(전무)을 내정했다.

지난달 NH농협금융으로부터 우리아비바생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DGB금융은 현재 합병후통합(PMI)TF팀을 구성하는 등 인수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에서 경영관리부문 전문가인 오 전 전무를 낙점했다.

그는 미국보험계리인(FSA), 국제재무분석사(CFA)를 미국 푸르덴셜 매니징 디렉터를 거쳐 한화생명에서 리스크관리를 전담했다. DGB금융은 오는 1월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그룹계열사 최초로 전문경영인인 오 후보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AIG손해보험은 지난 1일 김종열 한화생명 상품개발팀 상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보험계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 2003년 40대 임원으로 대한생명에 발탁된 인재다.

그는 이후 9년간 한화생명에서 플러스찬스 연금보험·싱글라이프보험·샐러리케어보험 등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7개를 획득하는데 공헌을 했다.

이중 5개 상품이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상품으로, 최근 저축성이 가미된 장기 하이브리드형 상품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 중인 AIG손보에게 적임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발탁된 정성한 이사도 한화생명 출신이다. 최근 교보생명에서 보험사업총괄을 맡게 된 고영선 부회장도 한화생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지난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생보사로서 시스템부분과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시중은행, 올 배당 늘린다

KB금융·기업은행 등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 '솔솔'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확대 등으로 올해 배당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섬에 따라 은행들이 배당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932억원을 배당한 KB금융지주의 배당 확대가 예상된다.

윤웅원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최근 투자자 컨퍼런스콜에서 "정부 시책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배당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의 배당 확대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1조2000억원대였던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이 올해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5.3%였던 배당성향을 올해에도 유지하더라도 배당액은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성향을 16%로 높이면 배당액은 2400억원, 17%로 높이면 2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IBK기업은행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배당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배당 관련 세입을 3800억원 정도 책정해 올해 3200억원 보다 늘렸다. 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은지주의 배당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행의 배당 확대는 확실시된다. 또 3분기까지 순이익이 8500억원으로 올해 전체 순익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세입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올해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663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는 3분기까지 순이익만 7467억원에 달해 배당 여력이 그만큼 높아졌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배당성향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배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배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도 배당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2조3000억원에 육박해 은행권 최대 순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배당 확대 가능성은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도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 확대는 전적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행복한 KB산타마을 선물 공장' 행사 KB국민카드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한 KB산타마을 선물 공장'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왼쪽)과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홍보대사 방송인 배수연 씨(오른쪽)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하이투자, 연 8.8% 수익 ELS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4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ELS 1종을 공모한다.

이 중에서 'HI ELS 693호'는 HSCEI 지수, EURO 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6.4%(연 8.8%)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김현정기자 hjkim1@



저소득 아동위한 '크리스마스 캠프' KDB생명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 리조트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KDB크리스마스 캠프'를 실시했다. 캠프에 참여한 서울 송파구 '아름다움 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DB생명 제공

내년부터 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 중단

내년부터 신용카드 고객들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없어질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고객에게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또 내년부터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티니(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자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도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던 3개월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또 제휴 병의원을 이용하면 결제 시 6~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포인트도 건강진단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이달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를 이용하면 결제시 5%를 적립해 주던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중단한 바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내년 코스피 예상 1849~2206선… '상저하고'

증권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되면 하반기 안정 전망

증권가는 내년 코스피 예상밴드로 최저 1849선에서 최고 2206선을 제시했다.

증권업계가 제시한 코스피지수 최저선은 1750선이고 최고치는 2350선이었다. 지난해 말 2400선까지 기대했던 장밋빛 전망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3일 최근 2개월새 국내 20개 증권사가 발표한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5년 코스피지수는 평균 1849~2206선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내년 코스피 상단치를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는 동부증권(2350)이었고 메리츠종금(2305), KB투자증권(2300) 등 순이었다.

반면 KDB대우증권은 2050선으로 내년 가장 낮은 코스피 상단치를 내놨고 유진투자증권(2100), SK증권(2130) 등도 보수적으로 바라봤다.

내년 코스피 하단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예상한 증권사는 이트레이드증권으로 1920선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종금증권(1910)과 삼성·키움증권(각 1900)도 1900선 유지를 점쳤다.

반면 교보증권과 KDB대우증권은 모두 1750선까지 내년 지수가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SK증권과 신영증권도 각각 1780선, 1790선으로 1800선 붕괴 가능성을 제시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내년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하반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삼성증권은 "코스피는 1분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다가 2분기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기업실적 개선이 받쳐주면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올해 시장을 짓누른 기업의 실적 부진도 내년엔 기저효과를 토대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부진으로 인해 내년 이익 전망치가 급속도로 하향조정되고 있고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으므로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과 유럽의 경기침체 등은 우려 요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60달러 밑에서 거래된다면 에너지·소재·산업재 등 경기민감 업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서 연구원은 "더불어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려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23일 서울시청역 5번 출구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했다. 왼쪽부터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승범 서울메트로 처장,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 변은경 서울메트로 역장이 서울시청역 건강기부계단 개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생보재단, 시청역에 '건강기부 계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23일 서울시청역 5번 출구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했다.

건강기부계단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조명과 음악이 나오며, 기부금이 적립되는 계단이다. 또 일별·월별 이용자 현황을 집계한 전광판도 설치해 기부금 적립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역 5번 출구는 서울광장과 연결돼 평소 유동인구가 많지만 보행자들의 95%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계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작됐다. 기부금은 혼자서 걷기 어려운 아동들의 보행보조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즐겁게 계단 걷기운동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는 1석 2조의 건강기부계단을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한국SC은행장에 박종복씨

첫 한국인 행장 탄생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첫 한국인 행장이 탄생했다.

SC은행은 23일 임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박종복(59·사진) 현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SC금융지주도 조만간 이사회와 주총을 열어 박 부행장을 SC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신임 SC금융지주 회장 겸 SC은행장은 내달 8일 취임하게 된다.

영국에 본사를 둔 SC그룹이 지난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한국SC은행은 현 칸왈 행장까지 모두 외국인이 행장을 맡아왔다. 한국인으로는 박 신임 행장이 처음이다.

박 신임 행장은 1955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8월 SC은행의 전신인 제일은행에 입행해 일선 영업점을 두루 거친 영업통이다. PB사업부장, 영업본부장, 소매채널사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 리테일금융총괄본부장을 맡아왔다.

한편 현 아제이 칸왈 은행장은 동북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로 한국과 일본, 몽골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대신증권, 29일까지 ELS 6종 출시

대신증권은 코스피200·HSCEI·유로스톡스50·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6종을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에서 'Balance ELS 667호'는 KOSPI200과 HSCEI를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6.7%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이고, 'Balance ELS 668호'는 KOSPI200과 HSCEI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8.2%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1.5년짜리 상품이다.

'Balance ELS 669호'는 KOSPI200과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매달 0.6475%(연 7.77%)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 'Balance ELS 670호'는 KOSPI200과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8%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3년짜리 상품이다.

'Balance ELS 671호'는 HSCEI와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8.2%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Balance ELS 672호'는 S&P50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4%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164일짜리 상품이다.최소 청약단위는 100만원이며 발행일은 이달 30일, 총 판매규모는 280억원이다.

/김현정기자

카드사, 광고에 '포인트' 담았다

최근 카드사들이 각자의 강점이 담긴 새로운 광고를 잇달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백마디 말보다 톡톡튀는 감성마케팅 하나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중에게 확실한 각인을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코드나인(Code 9)의 서비스 철학이 담긴 TV 광고 2편을 제작했다.

코드나인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남녀 각 9개의 코드로 분석하고, 이러한 코드들을 조합해 2만가지가 넘는 카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카드 서비스 체계다.

이번 광고 역시 고객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따른 코드를 찾아 이에 맞는 신한카드만의 차별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통합카드사로 첫발을 내딛은 하나카드는 둘보다 큰 '하나'라는 메시지를 광고에 녹였다. 하나SK와 외환카드가 통합했다는 점과 새로운 브랜드를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BC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전 세계 약 140여개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BC유니온페이카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택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정류장 2곳(압구정동 한양파출소 앞, 북창동 숭례문 앞)에는 가상현실 여행 체험존이 마련됐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본질에 또한번의 혁신을 더하다'

출력 높이고 연비도 향상… 가격은 오히려 내려

시승기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올해 3월 데뷔한 현대 LF 쏘나타가 처음 내세운 건 '본질'이었다. 6세대를 거치며 다양한 시도를 보여줬던 쏘나타는 7세대로 진화하면서 자동차의 기본기에 충실하겠다는 현대차의 의도를 담았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LF 쏘나타였지만, 어딘가 2% 부족했다. 특히 '연비'와 '경제성'이 화두인 요즘 12.1km/ℓ의 복합 연비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의 인기는 서서히 사그라졌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한 현대차의 화답은 무엇이었을까. 총 7가지가 준비된 쏘나타의 엔진 베리에이션 중 초반 2개 모델(2.0, 2.4 가솔린) 이후 내놓은 게 바로 현대차가 요즘 자신있어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22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쏘나타 하이브리드 시승회는 시작부터 부담스러운 '미션'이 주어졌다. 가장 좋은 연비를 낸 운전자를 평가하는 '경제운전 마스터'를 시상하겠다는 것. 그러자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다. YF 쏘나타 하이브리드 시승회에서 '연비왕'을 내걸고 경쟁하던 모습이었다. 당시 기자는 연비 1위를 차지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까짓 거 또 한 번 해보자'는 욕심이 생겼다.

시승은 메이필드 호텔에서 인천 하얏트 호텔까지 왕복 주행하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전날 내린 눈 때문에 노면 상태가 걱정됐지만, 시승이 시작될 무렵에는 노면이 깨끗이 정리돼 있었다.

LF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외관은 YF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전혀 다른 방향을 택했다. YF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과 달리 헥사고날(육각형) 그릴을 달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차체 곳곳에서 '친환경차'의 이미지가 물씬했다. 반면 LF 하이브리드는 아우디 TT를 연상케 하는 벌집형 그릴로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기존 LF 쏘나타와의 이질감을 줄이면서 하이브리드카의 이미지를 완성해낸 것.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을 달면 수평형 그릴로 바뀌는데, 개인적으로는 벌집형 그릴이 더 나아 보인다. 뒤 범퍼는 YF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깎아 공기저항을 줄였다.

실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클러스터가 눈에 띈다. 토크 표시 미터 대신 전기모터의 구동을 알려주는 미터가 장착돼 있고 배터리 충전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LF 하이브리드는 YF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병렬형 하드타입 TMED 방식을 사용한다. 모터를 2개 사용하는 토요타의 방식과 달리 현대차는 엔진과 모터 사이에 클러치를 넣어 제어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연비를 높이려는 의도다.

YF 하이브리드에서 쓰던 CVVT 엔진 대신 얹은 직분사 타입 GDI 엔진은 YF보다 6마력 늘어난 최고출력 156마력을 낸다. 여기에 전기모터 출력을 기존 30kW에서 38kW 높였다. 덕분에 하이브리드카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초기 가속이 좀 더 빨라졌다.

부드럽게 출발한 차는 고속으로 올라가도 여전히 조용하다. 디젤차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하이브리드카만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현대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기모터 주행(EV 모드) 가능 구간은 최고시속 120km까지다. 연비를 올리는 비결은 바로 이 전기모터의 활용구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성인 남자 두 명을 태운 시승차는 대략 시속 80km 부근에서 EV 모드가 꺼졌다. 오르막길을 만나면 EV 모드 활용구간은 좀 더 줄어든다. 과거 YF 하이브리드 시승회가 열렸던 강원도 양양 국도 구간과 달리, 이번 시승구간은 도로 구배가 들쭉날쭉해 EV 모드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LF 하이브리드는 첫 구간에서 26.0km/ℓ의 연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경우 제공받는 관성 주행 안내 기능의 덕도 톡톡히 봤다. 이는 주행 경로와 도로 정보를 미리 읽어 감속할 지점을 차가 안내해주는 기능으로,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비법 중 하나다.

기자는 이번 시승회에서 24.7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YF 하이브리드 시승회에서 기록한 24.9km/ℓ보다 약간 낮지만 정부공인 연비(복합 17.7km/ℓ)보다는 훨씬 좋은 기록이다. 특히 도로 여건이 더 열악했기 때문에 LF 하이브리드의 기술적 진보는 더욱 빛난다.

LF 쏘나타를 통해 현대차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일궈냈다. 2015년에 등장할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또한 기대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쇠똥' 석탄연료 대체한다

현대제철 연구 결실… 자원활용·온실가스 감축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표적 축산 폐기물인 우분(쇠똥)이 현대제철의 자원화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연료로 변모했다.

현대제철은 친환경 제선기술을 통해 자원화한 75t의 우분을 미분탄(석탄)을 대체해 당진제철소 고로 1, 2기에 나누어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세계 최초로 진행된 이번 우분의 고로 투입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로서 우분의 환경성과 조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조업 적용가능성 평가사업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우분을 미분탄(석탄)과 혼합해 사용하면 고로 내부의 연소효율이 높아져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든다"며 "이번 평가사업으로 최대 113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우분이 석탄을 대체할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3년간 우분을 활용한 친환경 제선기술 개발을 진행해 관련 특허 7건을 출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펼쳐왔다. 우분은 매년 국내에서 2300만t(건식기준 350만t) 정도 발생하지만, 극히 일부만 퇴비로 활용될 뿐 대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정화처리를 해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하지만 우분을 고체연료로 사용하면 1t마다 6.5t의 축산폐기물이 사라지고 1.5t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김민준기자 mjkim@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S' 발주… 조선사 가뭄에 '단비'

내년 50억 달러 규모 30여척 전망… 건조 경쟁력 절대 우위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건조한 현존 최대인 19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유가폭락으로 해양플랜트 신규 발주가 줄어들어 '울상'인 국내 조선사들에 내년 초대형 컨테이너선(Very Large Container Ship) 발주가 쏟아질 전망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선사들이 30여척에 달하는 1만8000~2만TEU급 초대형컨테이너선 발주를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척당 선가를 약 1억6000만 달러로 계산하면 50억 달러 규모의 선박 발주가 예고된 셈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는 것은 비용 절감 때문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한번 운송에 일반 컨테이너선의 2~3배 물량을 이동할 수 있다.

또 시장영향력을 키우려는 글로벌 해운동맹 간의 선대 확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 세계 1, 2위 선사인 머스크라인과 스위스의 MSC가 내년 초 M2(시장점유율 29.7%)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맞서 현대상선은 홍콩 OOCL, 일본 MOL·NYK, 독일 하팍로이드, 싱가포르 APL과 함께 G6(점유율 18.6%) 동맹체를 꾸렸다. 한진해운은 대만 에버그린, 중국 COSCO, 일본 K-라인, 대만 양밍과 손잡고 CKYHE(점유율 17.5%) 동맹체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

G6 회원사인 OOCL과 MOL은 최근 1만8000~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 위해 조선소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 G6 회원사 중 독일 하팍로이드가 1만8000~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준비하는 등 다른 선사들도 내년중 12척가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만827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한 머스크라인도 4~6척의 선박 추가 발주를 위해 조선소와 협상하고 있다.

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에 희소식이다. 지난 4년간 1만8000TEU 이상 컨테이너선은 현대중공업(8척), 대우조선해양(29척), 삼성중공업(3척), 현대삼호중공업(3척) 등 오직 국내 조선소만 수주해왔다.

중국과 일본 조선소가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1만4000TEU급이 최대였고, 중국 장난창싱 중공업만이 지난해 8월 1만7859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자국선사인 CSCC에서 수주했다.

/김민준기자

기술만 좋으면 연대보증 5년 면제

상의 '올해 규제개혁 10선'… 공인인증서 폐지·원격진료 확대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족쇄 완화가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성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혔다.

대한상의 측은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로 응답자의 74.5%가 꼽았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와 '액티브X방식 결제' 폐지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4위는 장애인 섬·벽지 주민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였다.

상의는 "의료관광과 원격의료 활성화는 서비스부문 고부가가치화에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4위에는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58.8%)'가 올랐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최신기술 적용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내부마감재 재시공 자원낭비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다.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언급됐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은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 임직원에게 케이크 선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연말을 맞아 23일 국내외 사업장에 케이크와 간식세트를 보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파주·구미·서울 본사에는 1600여 개의 케이크를, 중국 광저우·옌타이·난징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생산법인에는 2만여 개의 간식세트를 전달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삼성전자 '타이젠'에 SW역량 집중

스마트폰, TV 등 통해 독자 OS 선봬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역량을 독자 OS '타이젠'에 집중한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반면 기존 독자 모바일 OS '바다'와 모바일 메신저 '챗온'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바다 개발자 사이트 운영을 내년 1월 중 중단키로 했으며 챗온은 내년 2월 종료된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와 iOS 대항마로 공들여 개발한 바다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타이젠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바다와 챗온 등의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SW의 역량을 타이젠에 집중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타이젠은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등이 공동 개발해 2012년 공개한 OS로 샤프·NTT도코모·KT 등 글로벌 ICT 기업이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갤럭시 기어, 기어2 등 타이젠이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들이 잇따라 출시됐고 다음달에는 인도에서 10만원대 저가 타이젠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점한 타이젠을 안드로이드 앱이 추격 중이라는 점, 타이젠 기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사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기기들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위해서는 타이젠 기반 스마트 기기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TV다. 삼성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타이젠 탑재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TV는 가전기기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 기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TV에서 타이젠이 성공한다면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복잡해진 '13월의 보너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연말정산 간소화 똑똑하게'

어느새 직장인들의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복잡해진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 부분에서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며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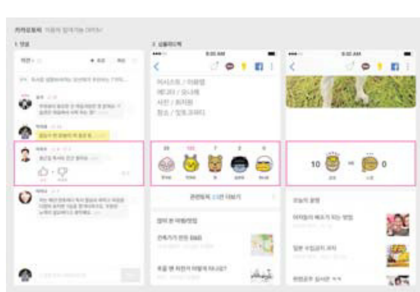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연봉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기자 ysw@

카카오토픽 의견 코너 신설

콘텐츠 댓글 달기·공감 표현 가능

카카오토픽에 이용자 댓글 공간이 신설됐다.

다음카카오는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 카카오토픽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는 '의견' 코너를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먼저 적용됐으며 iOS는 내년 1분기 중 도입된다.



의견 코너를 통해 이용자는 카카오토픽 내 모든 콘텐츠 하단에 위치한 의견 창에서 개인의 감상이나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의견에 올라온 댓글에는 공감 또는 비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현주 다음카카오 토픽파트장은 "지난달 안드로이드 버전에 우선 적용했던 심플 피드백 기능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참여의 공간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X-마스 일꾼의 '행복한 비명'

런던 시내 투어 가이드, 우버택시 운전수 등 바빠도 수익은 짭짤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매리 터커


바라캇 하고스



존 베일리



레베카 데이비드슨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크리스마스때 가장 바쁜 사람들의 즐거운 비명이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시내 투어 가이드, 택시 운전수 등 크리스마스 특수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소개했다.

남편과 '런던 워크'라는 시내 투어 업체를 운영하는 매리 터커는 일년 중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바쁘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워크'라는 두 시간짜리 투어 프로그램 때문이다. 트라팔가 광장을 시작으로 작가 디킨스가 생전에 즐겨 찾은 장소를 거쳐 코벤트 가든에서 끝나는 이 프로그램의 하루 고객은 보통 5명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30~40명이 몰린다. 디킨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터커는 "디킨스가 작품을 통해 크리스마스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꿨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라며 "디킨스가 생전에 산책을 즐겼다는 점도 기억할 만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자가용 운전수를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의 운전수 바라캇 하고스. 그는 크리스마스에 즐겁게 불평 없이 일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도인 그에게 12월 25일은 '평일'이기 때문이다. 정교회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다.

크리스마스 당일 런던 시내에는 버스와 열차가 모두 운행되지 않는다. 수천 명의 시민은 이날 택시로 친인척을 방문한다. 하고스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덕분에 하루 수입이 엄청나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15년차 배관공 존 베일리는 '크리스마스 구조대'로 나선다. 온 가족이 모인 잔칫날 부엌 싱크대가 막히면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아닌가. 베일리는 "크리스마스 당일 일을 마치면 집안에서 환호성이 터진다"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했다. 물론 수입도 짭짤하다. 베일리의 출장 수리비는 1시간에 100파운드(약 17만원)다.

크리스마스 특수에 레스토랑과 술집도 빠질 수 없다. 간단한 식사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스프레드 이글스'의 레베카 데이비드슨은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때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슨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점심 식사 예약 손님만 43명"이라며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신나게 장사할 계획"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재정난에 '코끼리 수출'

짐바브웨 국립공원 중국 등에 판매 계획

재정난에 빠진 짐바브웨 황게 국립공원이 코끼리 62마리를 외국에 팔아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게 국립공원 관계자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동물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약 230만 달러(약 25억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코끼리의 몸값은 한 마리당 4만~6만 달러(약 4000만~6000만원)다. 실제 판매할 경우 공원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짐바브웨는 나라 형편이 매우 어렵다. 지난 2000년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백인 농장주의 토지를 몰수, 빈농에게 나눠주는 토지 개혁을 단행한 뒤 발생한 여러 부작용 때문이다. 국립공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끊긴지 오래다.

총면적 1만4651㎢의 황게 국립공원에는 코끼리가 4만3000마리 있다. 적정 수용 규모인 1만5000마리의 두 배가 넘는다.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물값만 해도 엄청나다. 코끼리는 하루 200ℓ씩 물을 마신다. 80개 펌프 우물로 '코끼리 지하수'를 퍼올리는 데만 연간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가 든다.

짐바브웨 당국은 중국이 27마리, 프랑스가 15~20마리, 아랍에미리트(UAE)가 15마리의 코끼리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코끼리를 구입하는 목적과 수용 시설 등을 살펴보고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미기자





스페인 3조원 성탄복권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 라엘리아나에서 한 남성이 스페인의 성탄 복권 '엘 고르도'의 당첨 숫자가 적힌 복권을 들고 있다. 총 상금이 약 3조2400억 원에 이르는 엘 고르도는 당첨 번호가 찍힌 복권이 수천 장 발급된다. 여느 복권과는 달리 제한된 인원에 거액의 당첨금을 몰아주지 않고 수천 명이 당첨금을 탈 수 있는 방식이다. 올해 1등 번호는 13437번으로 10명에게 40만 유로(약 5억3730만원)씩 지급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15달러 기부했더니 무인도가 내 것

미국 게임업체 '깜짝 선물' 화제

미국에서 인기있는 카드게임인 '카즈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유저들이 최근 '깜짝 선물'을 받아 화제다.

시카고 트리뷴은 게임업체 '카즈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는 1인당 15달러(약 1만7000원)인 연말 기금 모금 행사에 참가한 25만 명의 게이머들에게 무인도 땅을 배분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업체는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보드게임, 체중조절 식품보조제 등 10가지 선물 보따리를 마련했는데 무인도 토지 1SF(약 930㎠) 소유권 등록 서류도 들어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업체의 공동 설립자 맥스 템킨은 모금액 375만 달러(약 41억원) 가운데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를 들여 메인 주 세인트 조지 호수의 자작나무 섬 2만5000㎡를 매입했다. 이 섬에 '하와이 2'라는 이름도 붙였다.

업체 측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섬은 나무로 덮여있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 기존의 나무를 베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유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파괴적이지 않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여러 구획을 함께 나눠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인도 매입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단순 재미로, 둘째 기금모금 참가자들에게 작은 땅을 나눠주고 싶어서, 셋째 야생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기금 모금액 가운데 25만 달러는 정부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워싱턴DC의 시민감시단체 '선라이트 파운데이션'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즈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임으로 주도자가 제시한 문장 속 빈칸을 자신이 쥔 카드 가운데 가장 기발한 단어나 구로 완성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발상의 전환!
증권사 최초 금융상품 연계
체크카드 탄생
able i max Card
i max
able
CMA 우대수익률 및 금융상품 추가수익률 혜택!
30%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제 체크카드 한 장으로 누리세요
소득공제
30% 혜택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최대 40%
현장할인
특급호텔, 유명 레스토랑 등
전국 50여개 제휴처 현장할인
수수료
무료 서비스
각종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전월실적 10만원 이상 시 제공)
able i max Card
able이 추구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현대증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담아 CMA, ELS, 펀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5가지 시리즈로 선보이며 인간이 만든 불가사의라 불리우는 완벽한 조형물인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탄생하였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7679호(2014년11월11일~2015년11월9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현대증권

FPS게임 '블랙스쿼드' 2015년 e스포츠 접수 선언







1월 3일 'BSN 방송리그' 시작 16팀 참가… 12주 대장정 돌입

올해 혜성같이 등장했던 신작 FPS(1인칭 슈팅)게임 '블랙스쿼드'가 2015년에는 e스포츠 공략에 본격 나선다. 게이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e스포츠계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내년 1월 3일 공식 방송대회인 '2015 BSN 방송 리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한 8개팀, PC방 리그 우승 6개팀, 타 FPS게임 시드 2개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한다. 여성부는 프리리그 방식의 이벤트 매치로 진행된다. 대회는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삼성동 곰 TV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곰TV를 통해 생방송된다.

상금방식도 파격적이다. 대회 상금이 이용자들의 게임 참여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BSN 방송리그'는 총 상금 2800여 만원이 누적된 상태다. 대회 개막일까지 3000여 만원의 총 상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블랙스쿼드'의 첫번째 방송 리그로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보다 많은 게이머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탄탄한 기본기… 쏘는 맛 최고

네오위즈게임즈의 이같은 자신감은 '블랙스쿼드'가 FPS게임 장르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보는 재미와 하는 재미를 게이머들에게 선물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블랙스쿼드'는 국내 유명 슈팅 게임 개발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언리얼 엔진3를 바탕으로 개발해 탄탄하고 완성도 높은 게임성을 자랑한다. 특히 슈팅 게임 마니아라면 느낄 수 있는 쏘는 맛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탄한 기본기와 차별화된 모드, 최첨단 현대전 세계관 기반으로 한 철저한 무기 고증도 게임의 재미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게임성은 십여 차례의 소규모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이미 검증받았다.

◆2주만에 신규 가입 30만 돌파

게이머들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11월 12일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블랙스쿼드'는 첫 주말 방문자수 10만명 달성했다. 이어 2주만에 신규 가입자 30만명 돌파 등 침체된 온라인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더 나아가 네이버 검색 순위도 10위권 내에 한달 이상 자리를 잡았다. FPS게임 순위도 단숨에 4위를 기록하는 등 게이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그동안 FPS게임 시장이 한 쪽으로 고착된 모습을 보여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었는데 '블랙스쿼드'가 게이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은 e스포츠를 중점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별이 되어라·불멸의 전사…

카카오 선정 '올해의 게임'

카카오게임에서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장르는 RPG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인기 게임을 선정하는 '2014 카카오 게임 대상-올해의 게임' 10종을 발표했다. 올해의 게임 선정 기준은 인기 순위 및 매출, 순이용자, 운영진 의견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의 '2014 올해의 게임'으로 '별이 되어라'·'불멸의 전사'·'블레이드' '세븐나이츠'·'숲속의 엘리스'·'애니팡2'·'영웅'·'우파루사가'·'팜히어로사가'·'포켓 메이플스토리'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6종이 RPG 장르였다.

올해의 게임을 만든 개발사들로는 '네시삼십삼분'·'넷마블게임즈'·'선데이토즈'·'NHN엔터테인먼트'·'파티게임즈'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킹닷컴'은 유일한 해외 개발사였다.

한편 2012년 7월에 7개 파트너와 10개 게임으로 시작했던 카카오 게임은 현재 400여 개 파트너와 600여 개 이상의 게임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방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중개자란 의의가 있지만 카카오게임의 수수료 문제는 게임 업계 최대 고민이기도 하다.

/장윤희기자

게이머의 힘으로 어린이 재활 돕는다

넥슨, 전문병원 건립위해 200억 기부

넥슨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200억원을 기부한다.

넥슨 컴퍼니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푸르메재단에 2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푸르메재단은 병원의 공식 명칭을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정했다.

서울 상암동에 2016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이 병원은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이다. 지상 7층, 지하 3층의 병상 100개 규모로 연간 15만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전망이다.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는 "어린이들이 장애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운을 북돋아주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며 "병원 건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넥슨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200억원 약정식의 모습. /넥슨제공

서울에서 한국인의 삶을 보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법칙"… 정치 경제학으로 포착한 '서울'

서울은 그곳에 사는 사람만 1000만명, 일터 삼아 드나드는 사람까지 더하면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다. 그러므로 이 도시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수많은 삶을 작동하는 운영 체제(OS)라 할 수 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서울이 가지는 위상에 비춰 서울이라는 운영 체제는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서울의 성취와 서울의 문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한국사회, 한국인의 삶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운영 체제를 정치경제학으로 포착했다.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 '일하기 전엔 몰랐던 것들' 등에서 정치경제학과 일상,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솜씨 있게 버무렸던 충남대 경제학과 류동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소진되는가
류동민/코난북스

저자 자신을 포함한 삶의 내밀함을 담아냈다.

저자는 서울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으로, 정치나 자본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저자 자신을 비롯해 이 도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절망이 더해져 변화하는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역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포착했다.

크게 물신과 배제, 추격과 모방, 능력주의의 신화라는 틀로 서울을 이야기한다.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들이 누구나의 소비, 주거, 여가, 노동, 종교, 대학, 사교육, 명품 같은 우리 삶의 부분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인다. 케인즈의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라는 명제, 마르크스의 '이른바 시초축적',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 피케티비율 같은 경제학사의 개념과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추어 내볼 수 있는 주요한 장치가 된다. 이러한 도구와 장치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알아서 살아남기'가 생존의 법칙이 된 사회, 능력주의라는 신화가 무너진 시대가 지금 여기 서울이자 한국 사회라는 것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우린 아직 청춘이다



우리는 모험이 필요하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39살의 소설가도, 20살의 대학생도, 73살의 노인도 상관없다. 가야할 곳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모험이 필요한 청춘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청춘 동남아'(서진/미디어윌) 중- /황재용기자

나는 일하는 여자야!

화제의 책

여성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지침서

월요일의 그녀에게
임경선/알에이치코리아

2007년 출간 이후 2030 직장인 여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직장생활 가이드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임경선 작가의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자로 산다는 것'의 전면 개정판이 나왔다.

책에서는 자신의 20대와 30대를 열혈 직장인으로 오롯이 살아온 저자의 경험은 물론 10년간 라디오와 각종 매체를 통해 상담한 수많은 사례의 조언과 교훈이 소개된다.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는 직장 내



인간관계,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회의, 그리고 직장인으로 사는 여자들의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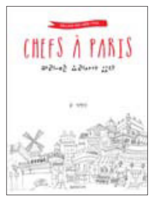
아울러 책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 직장인 여성에게 책상 정리와 출근길 옷차림, 일 처리의 우선순위와 전직의 타이밍, 상사나 동료를 대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것도 동시대 여성과의 심리적인 연대를 단단하게 구축해온 저자 특유의 감성으로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노하우를 솔직하게 녹여내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계획과 포부를 고민하는 지금, 많은 여성 직장인들에게 지침서가 될 명쾌한 상담이 이제 시작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새로 나온 책

파리에는 요리사가 있다
박현진/BR미디어



30~50 유로 선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수준급 요리를 선보이는 파리의 레스토랑 48곳을 소개한다. 파리의 가스트로-비스트로의 시작을 알린 전설적인 셰프 크리스티앙 콩스탕의 '비올롱 댕그르'부터 샹 젤리제로 돌아온 셰프 티에리 뷔틀로의 '카페 뷔를로'까지 다양한 레스토랑과 셰프들의 이야기와 함께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음식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와 설명 등을 실었다.

원전 화이트 아웃
와카스기 레쓰/오후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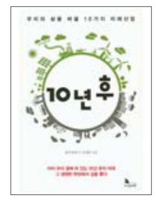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원전마피아와 일본 정·관·재계의 검은 속내를 폭로한 팩션이다. 일본 현직 고위 관료라고 알려진 저자는 '와카스기 레쓰'라는 필명으로 정체를 숨긴 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과 사회를 망가뜨리려 하는 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정당, 기업 등이 실존하는 특정한 것들을 바로 연상시킨다는 점이 이슈가 됐다.

로잉
로즈 새비지/영혼의 날개



30세 평범한 직장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눈뜨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방법으로 대양 횡단 항해를 결심한다. 책은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이뤄진 그녀의 태평양 횡단 여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여성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존감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10년 후
한국경제TV 산업팀/지식노마드



우리 삶을 바꿀 10가지의 미래산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실었다. 12명의 기자가 두 해에 걸쳐 취재한 결과를 모아 한국경제TV의 1부작 다큐멘터리 '산업다큐4.0, 미래성장보고서'를 만들고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더해 책으로 썼다. 저자들은 미래의 방향을 읽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엇이 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아는게 중요하다고 전한다.

존과 조지
존 돌란/동아일보사



하루하루 길바닥을 전전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던 홈리스에서 비평가들의 격찬을 받는 길거리 아티스트로 변신한 존 돌란과 그의 강아지 조지에 얽힌 실화. 스무 해 넘게 노숙, 범죄, 교도소, 우울증, 마약 중독이라는 회전문에 갇혀 살던 존은 조지를 만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존은 3년 동안 런던 쇼디치 거리에 앉아 주변에 있는 낡은 건물과 조지의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해졌고, 2013년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박지원기자 pjw@

인터넷 교보, 배송 디자인 공모전

박스·선물 포장 패키지 2개 부문 대상

인터넷 교보문고는 배송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내년 1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전은 배송 박스 디자인과 선물 포장 패키지 디자인 총 2개 부문이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배송 박스 디자인 부문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하는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배달되는 배송 봉투와 배송 박스의 디자인을 공모한다. 수상작 중 일부는 실제 인터넷 교보문고의 배송 박스로 구현된다. 봉투와 박스 디자인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응모 완료로 인정된다.

선물 포장 패키지 디자인 부문은 책을 선물할 때 제공되는 포장 패키지의 디자인을 공모한다. 수상작 중 일부는 실제 상품화하고 판매할 예정이며 선물 포장 패키지 디자인 부문은 상품화된 수상작에 한해 1년간 판매 수익의 일부가 배분된다. 도서 1권용과 2~4권 용, 메시지 엽서 디자인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응모 완료로 인정된다.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작을 1월 23일에 공개하고 2차 심사는 2월 11일까지 내부 심사와 고객 투표를 병행해 2월 19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 당 대상 1팀에 300만원, 최우수상 1팀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배송 박스 디자인 부문은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2팀 10만원이, 선물 포장 패키지 디자인은 우수상 1팀 50만원, 장려상 3팀 10만원이 주어진다.

/김수정기자

물·녹차·우유 많이… 라면·커피는 자제를

연말연시 잇단 술자리 숙취 해소법과 올바른 음주습관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다음날 몸의 컨디션은 말이 아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부터 '숙취'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요령'들을 지킨다면 다음날 컨디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하는 숙취 해소법과 올바른 음주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1차 술자리, 당분 음료·물과 함께…채소와 과일·고단백질 안주

처음 술을 마실 때 혈당이 보충되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혜나 수정과·꿀물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셔 알코올을 희석시키는 것도 요령이다. 안주는 채소와 과일이 좋다. 특히 배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 있어 숙취 해소에 제격이다. 살코기·생선·두부·치즈와 같은 고단백질 안주도 챙겨 먹는다.

◆식사 꼭 해야 저혈당 예방…따뜻한 국물로 땀 내면 숙취 원인물질 배출

술 마신 다음날은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며 쓰리다. 이를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려면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땀을 흘리면 된다. 알코올이 땀으로 배출돼 숙취가 해소되는 것이다. 속이 불편해도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음주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쓰여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콩나물국·북엇국·조갯국·재첩국 등 '맑은 국물'로 해장…라면은 금물

속이 쓰릴 때 라면으로 속을 푸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맵고 짜고 뜨거운 라면은 술로 손상된 위를 더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 때 콩나물국·북엇국·조갯국·재첩국 등 맑은 국물이 속도 풀어주고 숙취에 큰 도움이 된다.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기 때문이다.

◆물 충분히 섭취해 탈수 막아야…커피 대신 숙취에 좋은 '녹차'

술 마신 다음 날 갈증이 심하다면 몸이 요구하는데로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다는 느낌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알코올로 빼앗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간혹 술 마신 다음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들이 있는데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위를 자극하고 이뇨작용으로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녹차·감잎차를 마시는 게 좋다.

◆숙취 해소 안하면 간에 '무리'…과음 후, 최소 사흘은 자제해야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때는 두통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간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두통 해소에는 녹차가 제격이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비타민C·아스파라긴산·알라닌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돕는다.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 줘 도움이 된다. 또 과음한 경우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최소 사흘은 술을 쉬는 게 좋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크리스마스 황금연휴 앞두고 판매 급증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추위 속에 때아닌 비키니 수영복·비치원피스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패션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비키니와 비치원피스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각각 117%와 92%가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휴양지에서 맞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급증한 가운데 덩달아 여름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쇼핑몰 측은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크리스마스와 내년 1월 1일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다.

올 겨울 들어 팔린 비키니와 비치원피스도 전년과 비교해도 160%, 53% 증가했다. 지난해 비치웨어 판매량 증가폭이 그 전년 대비 36%인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여름 상품도 많이 팔렸다.

전월 동기 대비 샌들의 판매량은 57%, 반바지 25%, 선글라스 24% 신장했다. 여행용 가방과 반팔 티셔츠도 각각 24%, 16% 늘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황금연휴로 여행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 "여성은 비키니와 비치원피스를, 남성은 반바지와 샌들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

연말 홈파티족 위한 상품 파격 할인

강강술래, 곰탕·육포 40% 할인
인기메뉴 송년세트 특가 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연시를 집에서 보내려는 알뜰 '홈파티족'을 위해 이달 말까지 파격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강강술래는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360gX3박스·3만9600원)와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X3박스·2만5200원)를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 500g+한돈양념구이500g+돼지양념구이500g)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 갈비맛 쇠고기 육포박스(50g·10봉)는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싼 6만4000원에 내놓는다.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마케팅 및 상품 기획, 종합몰·오픈마켓 관리 등을 담당할 온라인쇼핑몰 팀장을 공개 채용한다. 홈페이지에서 입자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klfds24@sullai.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마운틴듀, '월드 스노보드 데이' 공식 파트너로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브랜드 '마운틴듀'는 19~21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월드 스노보드 데이 2014'에 공식 파트너로 참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대회 스폰서 부스에서 이달 출시한 마운틴듀의 신규 패키지 '롱넥 보틀'을 제공했다. 마운틴 듀 롱넥보틀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기 위해 목 부분을 길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추워질수록 집에서 장보는 주부 늘어

온라인 몰·홈쇼핑 식품 매출 '껑충'

한파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몰과 홈쇼핑에서 생필품 매출이 급증했다. 혹한의 날씨에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데다 집 앞까지 배송해 준다는 장점때문에 고객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측의 분석이다. 특히 생수, 과일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식료품이 많이 팔렸다.



23일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가장 빠른 매진 사례를 기록한 제품은 '아이시스 생수'였다. 해당 상품은 준비된 5000개 물량이 오전 중에 전량 소진됐다.

이 온라인몰에서는 최근 1주일간 가공식품 카테고리 매출액이 지난주 대비 20% 증가했는데 즉석식품(17%), 커피·차·음료(32.4%), 베이커리류(19%), 수입식품(31%), 홈베이킹(23%) 등이 매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롯데슈퍼도 인터넷몰 구매 건수와 사이트 방문자 수가 전주 보다 각각 23%, 43%가량 늘었다.

TV 홈쇼핑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GS샵의 경우 12월 셋째 주 편성된 식품 상품이 평소보다 10~30%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홈쇼핑 측은 대체로 다음날 배송되는 데다 한파 때문에 장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 주부들의 주문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저녁 7시35분부터 방송된 '산지애 사과9kg+사과즙 9봉'은 39분만에 9600 세트가 판매되며 평소보다 30%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 추운 날씨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식품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영하권의 날 지속되면서 온라인 식품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거잠포 일출


정소진 일몰

공항철도 타고 일몰·일출 보러 가요!

코레일공항철도, 해 뜨는 시간 맞춰 연장 운행
31일 청라역 정서진에서는 해넘이 축제 열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국 일출 명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찬다. 게다가 이곳까지 다녀오는 것도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곳에서 교통대란 없이 해맞이를 할 수 있다. 바로 공항철도를 이용해 일몰·일출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새해 1월 1일 일출 시각에 맞춰 무의도 입구에 위치한 거잠포로 신년 해맞이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거잠포는 앞 바다에 매랑도와 사렴도 등 두 개의 무인도가 있는 등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서해지만 동쪽으로 휘어진 지형적 특성으로 일몰뿐만 아니라 일출도 아름다운 '해 뜨고 지는 포구'로 인기가 높은 여행지다. 특히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겨 '샤크섬'으로도 불리는 매랑도 뒤쪽으로 붉은 태양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은 한폭의 그림과 같은 장관을 선사한다.

또 열차는 서울역 출발 인천공항역행 일반열차를 거잠포 앞 용유임시역까지 왕복 3회 연장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1개 모든 역에 정차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오전 7시48분으로 예정된 거잠포 신년 일출 시각에 맞춰 오전▲5시40분 ▲5시51분 ▲6시2분에 서울역을 출발해 오전 ▲6시49분 ▲7시3분 ▲7시11분에 용유임시역에 도착한다. 아울러 해돋이 감상 후 탈 수 있는 귀가열차 시간은 오전 ▲8시41분 ▲9시3분 ▲9시27분이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 청라역 인근 정서진에서는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제4회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열린다.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국토의 정서쪽에 있어 '정서진'으로 명명된 이곳은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위치해 있으며 영종대교 주변 섬들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이 아름다워 일몰 명소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인천시 서구청 주최로 진행되는 축제는 민속놀이마당, 소원연 만들기 등의 식전 행사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아듀 2014'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또 인순이와 크레용팝, 박현빈 등이 출연하는 해넘이 콘서트와 불꽃놀이도 빠뜨릴 수 없다.

한편 정서진은 청라역에서 77-1번 버스를 이용하면 쉽게 도착할 수 있으며 축제 당일에는 청라역과 검암역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해넘이와 해돋이를 한번에!

코레일관광개발, '무박 2일 패키지'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이 서해 해넘이와 동해 해돋이를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새해맞이 '해넘이·해돋이 패키지'를 출시했다.

상품은 인천 정서진에서 2014년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하고 정동진으로 이동해 2015년 첫 해돋이를 바라보는 무박 2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31일 서울역에서 전용버스를 이용해 인천에 도착한 후 크루즈에 승선한다. 이곳에서는 선상 뷔페와 마술 공연, K-POP 커버댄스 등을 즐기며 올해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면 된다.

이어 인천 정서진에서 해넘이 축제를 관람하고 전용차량을 이용해 청량리역으로 이동한다. 밤 11시25분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도착하면 2015년 1월 1일 4시28분이 된다. 정동진에서는 해돋이를 보는 것은 물론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해맞이 축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태백으로 이동해 태백산 눈꽃 자유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동양 최대의 석탄 박물관과 아름다운 눈 조각은 색다른 추억으로 다가온다.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태백역에서 오후 4시39분 열차에 오르면 2014년의 마지막과 2015년 첫 출발을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은 마무리된다. 문의: 1544-7755 /황재용기자

겨울 건강, 유산균이 책임진다

동국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프로비마게' 인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유산균 섭취를 통한 장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산균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중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프로비마게(PROBI MAGE·사진)'가 인기다.

제품은 여러 논문과 국제특허 등을 통해 효능을 입증받은 'LP299V' 균주를 사용한 것으로 스웨덴 프로비사는 '장내 정착 및 증식성 검증'이라는 논문을 통해 프로비마게의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동국제약은 이미 1차 도입 물량을 성공적으로 판매했으며 1차보다 5배 이상 물량을 늘려 2차 발주를 했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관계자는 "프로비마게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입증된 탁월한 효과는 물론 안정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 구입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매장인 네이처스 비타민숍이나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문의: 080)569-8607 /황재용기자

중증질환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이대목동병원, 심평원 평가서 폐·대장·유방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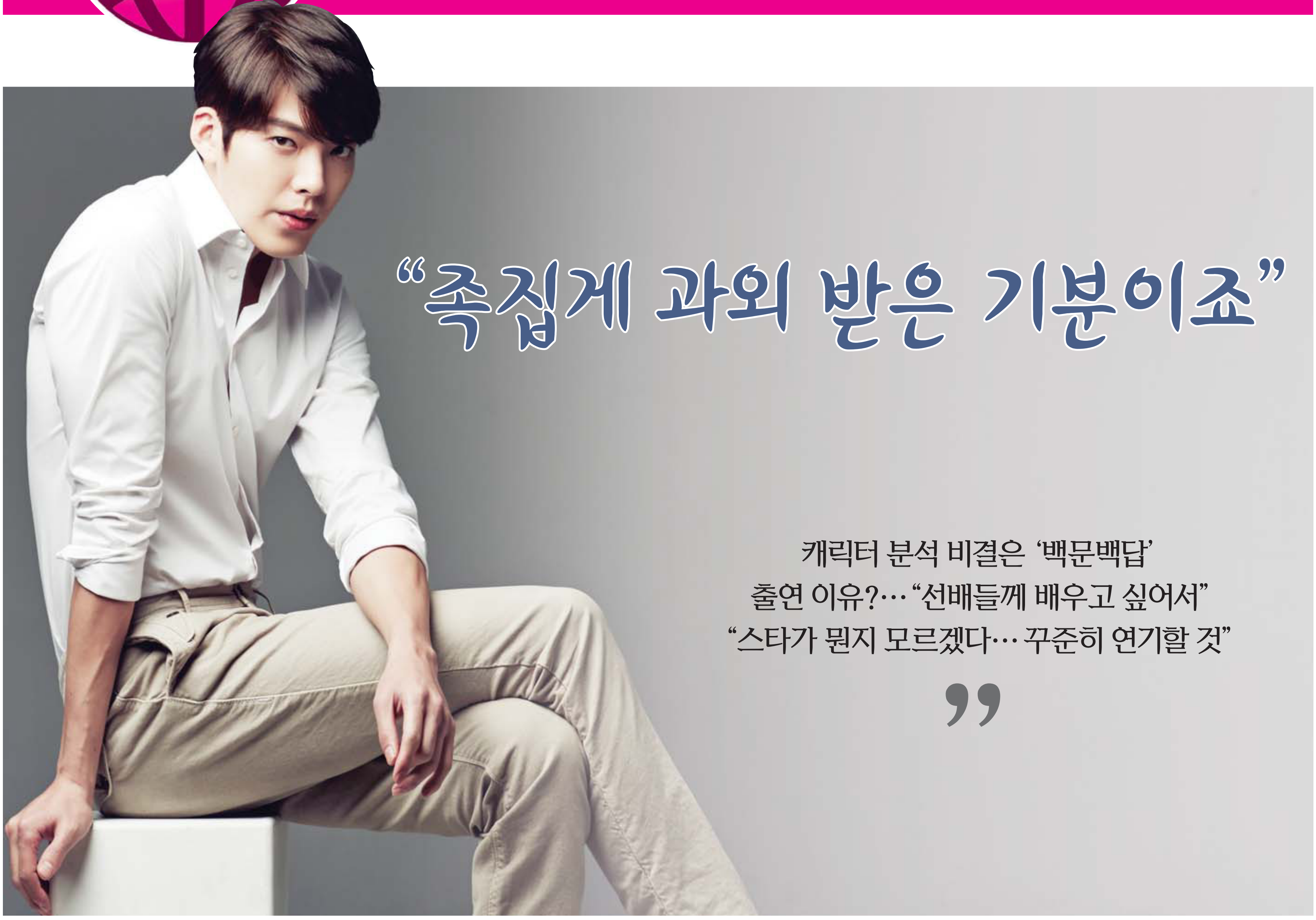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폐암·대장암·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은 먼저 심평원이 2013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 폐암 평가에서 종합 점수 99.68점을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 점수는 전체 병원 평균 점수(94.65점)와 상급종합병원 평균 점수(98.22점)보다 높은 점수다.

이와 함께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기록 충실도, 수술 부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

또 이에 앞서 병원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등급을 획득해 여성암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유권 이대목동병원 원장은 "중증질환 역량 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잇달아 획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서 앞서 나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족집게 과외 받은 기분이죠"

캐릭터 분석 비결은 '백문백답'
출연 이유?…"선배들께 배우고 싶어서"
"스타가 뭔지 모르겠다… 꾸준히 연기할 것"

영화 '기술자들'의 지혁 역 김우빈

배우 김우빈(25)의 두 번째 영화 '기술자들'이 24일 개봉한다. 영화 '친구2'(2013)에서 유오성·주진모 등 선 굵은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우빈은 '기술자들'에서 한층 더 날렵해졌다. 영화는 동북아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인천세관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 원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털기 위해 모인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우빈은 금고털이 기술자 지혁 역을 맡았다. 비상한 두뇌로 위조와 작전 설계, 액션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멀티 플레이어다.

"극 전체를 보려고 했어요. 순서대로 촬영하지 않으니까 매 장면 몰입하다 보면 장면들을 붙여놨을 때 흐름이 깨질 수 있거든요. 특히 '기술자들'은 지혁의 감정선대로 내용이 전개되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했어요. (감정이) 더 들어간다 싶으면 시나리오를 다시 읽으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했죠. 지혁은 영화적인 인물이지만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내고 싶었어요."

영화 속 지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김우빈은 자신만의 연기 비결인 '백문백답'을 이야기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했다면 관객이 쉽게 다가갔을 거예요. 아쉽지는 않아요. 저 혼자만의 작업으로 지혁의 일대기를 작성해봤어요. 매 작품마다 (비중이) 작은 역이라도 그랬어요. 백문백답은 촬영 들어가기 며칠 전 마지막 점검으로 하는 저만의 작업입니다. 이 인물이 무슨 옷을 입을 지까지 깊이 들어가 상상해요. 지혁의 패션도 날렵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내려고 했죠. '백문백답'을 하다 보면 어느 새 지혁처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홍선 감독은 "케이퍼 무비(범죄자들이 모여 돈이나 보석 등을 강탈하는 내용을 그리는 영화) 그 자체"라고 '기술자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영화는 장르 가리지 않고 다 보는 편인데 '기술자들'을 선택한 뒤에는 일부러 케이퍼 무비를 보지 않았어요. 저만의 지혁을 만들고 싶었죠. 감독님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처럼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능청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지혁은 인력조달 기술자 구인(고창석), 서버 해킹 기술자 종배(이현우)와 한 팀이 돼 작전설계 기술자이자 악당인 조 사장(김영철)과 대립한다. 김우빈은 출연진 중 연기경력이 막내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로 선배들을 추억했다.

"영화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선배들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싶었죠. 가까이에서 선배들의 눈빛을 보면 그 안에 장면 전체가 담겨 있는 듯해요. 지혁 위주의 영화지만 선배들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길 잃은 아이가 됐겠죠. 모두 제가 지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현우는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으로는 선배예요. 극 해석 능력, 선배, 스태프를 대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사적으로는 애교 많은 동생인데 현장에서는 진중하고 에너지 넘치는 배우예요. 족집게 과외를 받은 기분이죠."

배우 조윤희는 '기술자들'의 홍일점 은하로 출연한다. 은하는 지혁과 러브라인을 형성한다. 두 사람의 엔딩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그려진다.

"(아랍행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에 '아부다비'라고 써 있어서 휴가 가는 줄 알았어요(웃음). 갔더니 종교 문제 때문에 외국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40도 날씨에 긴박하게 촬영을 했죠. 은하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단정 짓고 싶지 않았어요. 지혁에게는 가족 같은 여자죠. 결말을 열어두고 싶어서 스스로 애매하게 연기 했어요."

김우빈은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2011)로 모델에서 배우가 됐다. '신사의 품격'에서 반항아로 시선을 끌더니 '학교2013' '상속자들'로 대세 배우가 됐다. 그는 "스타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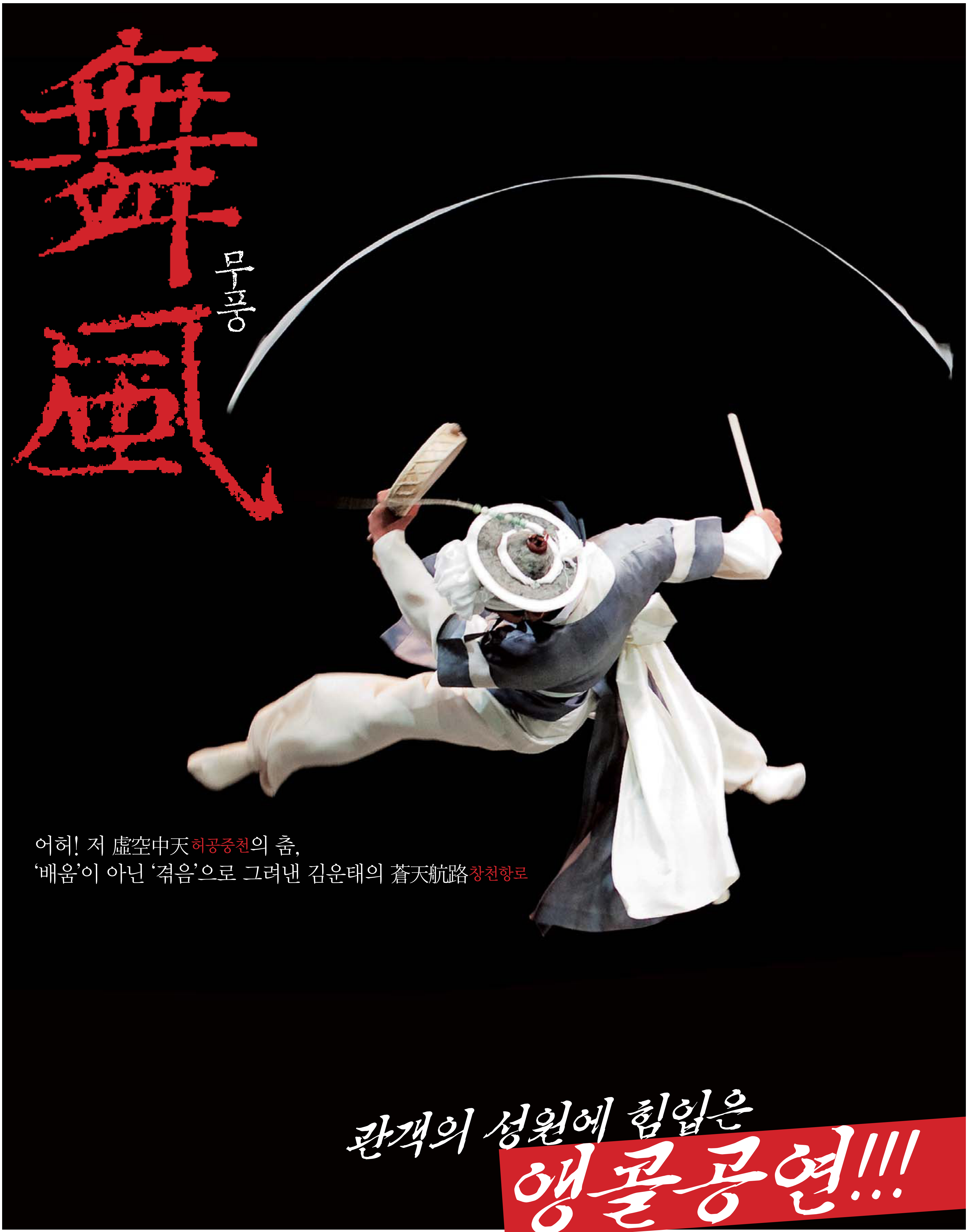
"갑작스러운 관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갑자기 없어져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어주는 것에 대해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되 한 걸음이라도 매일 꾸준히 걷고 싶어요. 언젠가는 정상까지 올라 가고도 싶고요. 배우로서 지금은 배운 대로 열심히 문제 풀이를 하는 단계죠. 차기작으로는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보고 있어요. 당장은 내년 2~3월 개봉될 강하늘과 찍은 영화 '스물'이 차기작이에요. 그 뒤에 빨리 결정해서 새 옷 입고 '이 옷 어때요~'라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싸이더스HQ제공·디자인/박은지

2015 연희단 팔산대 앵콜공연

|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2015.1.1(목) ~ 1.3(토) 목 7pm | 금 8pm | 토 3pm, 7pm 국립극장 KB하늘

춤 김운태 고증·지도 김정숙 이영단 기악 서은숙 배지원 조미현 무용 이송 박보슬 윤미정 박근원 소리 장보미 풍물 유가비 이규호 박소원 박주연 임현섭 정호영 정호은 임우섭 정예닮

기획·연출 진옥섭 연희감독 김운태 무대감독 여훈 음향 한정호 조명 권혁준 의상 신근철 사진 박정훈 이진환 영상 서재준 디자인 디자인필_김정규 조한샘 컴퍼니매니저 임준철 김정애 홍보 PRM커뮤니케이션_김도연 제작 진행 사인기획_김성겸 김재희

주최 연희단 팔산대 티켓 30.000원 공연문의 1644-8609 예매처 1644-8609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제프 버넷의 '코믹' 드라마

'훈련소의 그녀'로 양동근·나나와 호흡

배우 양동근과 애프터스쿨 나나, 팝 가수 제프 버넷이 함께 코믹 작품에서 만난다.

23일 오전 비퍼니스튜디오스는 파주 일대에서 진행된 뮤직드라마 '훈련소의 그녀'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훈련소의 그녀'는 비퍼니스튜디오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뮤직드라마로 제프 버넷의 인기곡 '걸 엣 더 커피숍'을 패러디한 영상이다.

'훈련소의 그녀'는 배경을 카페에서 훈련소로 옮겨 한 겨울 훈련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미디로 담았다. 양동근은 훈련병으로, 나나는 미모의 조교로 등장한다. 그동안 방송에서 귀엽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준 나나와 연기파 배우 양동근의 호흡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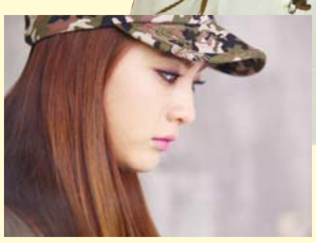
이와 함께 원곡 가수 제프 버넷이 직접 출연해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제프 버넷은 '콜 유 마인'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 팬에게도 친숙한 뮤지션이다. 지난 21일 SBS '가요대전'에서 빅뱅의 태양과 함께 특별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비퍼니스튜디오스 이승호 파운더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콘셉트에 맞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다"며 "출연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화기애애하게 촬영을 끝냈다"고 촬영장 분위기를 전했다. '훈련소의 그녀'는 내년 1월 초 비퍼니스튜디오스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비퍼니스튜디오스는 브래드피트, 톰크루즈 등이 소속된 미국 CAA와 퍼니올다이의 합작 법인이다. 헐리우드 스타와 아시아 스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걸그룹 에프엑스와 포미닛 현아,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과 투애니원의 산다라박 등이 출연한 동영상을 공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제프 버넷(위), 나나(왼쪽), 양동근.

장기하, '가수 전념' 선언

"2012년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DJ하며 행복했다"
"루머로 하차하는 것 아냐… 음악에 집중할 것"

가수 장기하(사진)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진행했던 SBS 파워FM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이하 '장대라')에서 하차한다.

장기하는 22일 오후 10시 '장대라' 생방송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자신의 팬 카페를 통해 하차 이유와 심경을 전했다.

그는 "내년 1월 4일 생방송을 마지막으로 '장대라' DJ를 관두게 됐다"며 "라디오가 즐겁지 않아서 DJ를 관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음악이라는 본업에 충실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하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DJ 장기하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참 행복했다. '장대라' 가족들이 내게 '덕분에 위로 받았다, 고맙다'고 말해 줄 때 나는 더 큰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느꼈다"며 "DJ를 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곡도 최근에 발표했다"고 청취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기하는 "앞으로 만들 음악은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늘 해오던 정규음반 발매와 단독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뮤지션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며 향후 계획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악성루머로 라디오에서 하차한다는 일각의 추측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하차는 루머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오랜 고민을 거쳐 결정한 일"이라며 "루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장기하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지난 2011년 8월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를 알게 된 뒤 2012년 4월 자신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이후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폰을 만들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했다. 또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하가 해킹한 내용들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돌려봤으며 끊임없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장기하의 소속사 두루두루amc 측은 지난 18일 "사실무근"이라며 "너무나 허황돼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결국 소속사 측은 경찰에 루머글 작성자를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기하 역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고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장기하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장대라'의 DJ로 활동하며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슈퍼주니어 日 차트 정상에

오리콘 데일리 이어 위클리 차트까지 석권

그룹 슈퍼주니어가 '마마시타'로 일본 차트 정상에 올랐다.

슈퍼주니어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출시된 슈퍼주니어의 일본 싱글 6집 '마마시타(아야야)'가 발매 당일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1위에 오른데 이어 위클리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슈퍼주니어가 오리콘 위클리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싱글은 지난 9월 한국에서 발표한 정규 7집 타이틀곡 '마마시타'의 일본어 버전이다. 슈퍼주니어는 앞서 '마마시타'로 국내 음악차트는 물론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홍콩·대만 음반차트 등 각국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슈퍼주니어는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지만 도쿄돔에서 3년 연속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쿄돔·쿄세라돔·후쿠오카돔 등 3개 대형 돔에서 진행된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6' 일본 공연은 28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내년 1월 10·11일 이틀간 태국 방콕 임펙트 아레나에서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6'의 열기를 이어간다. /김지민기자

정용화, 자작곡으로 불우이웃 돕는다



'별, 그대' 수익금 소속사 통해 전액 기부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사진)가 신곡 '별, 그대'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용화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정용화의 자작곡 '별, 그대'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 그대'는 어쿠스틱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 팬들의 사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팬송이다. 정용화는 21일 오후 SBS '가요대전'에서 '별, 그대' 무대를 깜짝 공개해 팬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정용화는 '별, 그대'로 발생하는 수익을 FNC 엔터테인먼트의 사회 공헌 브랜드 '러브 FNC'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팬들에게 내 생각이 전달된다면 그것만으로 의미 있는 곡"이라며 "가사를 잘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화는 씨엔블루의 리더이자 메인보컬로서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하며 차세대 싱어송라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아임 쏘리'를 비롯해 '캔트 스톱', 메이저리거 류현진(LA 다저스)의 올 시즌 테마곡 '류 캔 두잇' 등의 노래는 팬들은 물론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용화는 내년 솔로앨범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지민기자


국제시장


기술자들

크리스마스 극장가 '골라보는 재미'

'국제시장' '기술자들' '상의원' 3파전 속 '님아' 흥행 계속
외화 '호빗' '숲속으로' 흥행 도전… 애니메이션도 '풍성'

어느 새 또 크리스마스다. 극장가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2월 초부터 시작된 대작들의 흥행 대결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한결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화계의 관심은 한국 메이저 배급사들이 선보이는 대작들의 흥행 성적표에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는 CJ엔터테인먼트의 '국제시장'과 24일에 개봉하는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기술자들'과 쇼박스 미디어플렉스의 '상의원'의 3파전이 예상된다.

'국제시장'은 개봉 4일 만에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22일까지 176만명의 관객을 기록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중장년층 관객을 사로잡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맞서는 '기술자들'과 '상의원'은 보다 젊은 관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영화로 도전장을 내민다.

'기술자들'은 김우빈, 이현우 등 10~20대 관객들이 좋아하는 청춘스타를 내세웠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케이퍼 무비 장르로 극장가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상의원'은 한석규와 고수, 그리고 유연석과 박신혜라는 신구 세대 배우의 조화가 눈에 띈다. 폭넓은 관객층을 지닌 사극 장르라는 점, 그리고 사극 최초로 조선 왕실의 의복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다만 '기술자들'과 '상의원'은 이야기의 짜임새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크리스마스에 이어 연휴까지 흥행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상 밖 흥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2일까지 누적 관객수 251만을 넘어서며 '워낭소리'(292만)를 넘보고 있다. 박스오피스 순위도 2위로 한 계단 상승해 대작들 속에서 어떤 성적을 올릴지 주목된다.

외화들의 흥행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시장'과 같은 날 개봉한 '호빗: 다섯 군대 전투'는 22일 현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밀려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객 동원에서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아이맥스 상영 등의 특수를 노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반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화를 소재로 한 디즈니의 뮤지컬 영화 '숲속으로'는 24일 개봉해 흥행 대결에 동참한다.

가족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들도 크리스마스에 만날 수 있다. '뽀로로 극장판 눈요정 마을 대모험' '쥬로링 동물탐험 극장판' 등이 이미 개봉해 상영 중이다. '눈의 여왕2: 트롤의 마법거울' '일곱난쟁이' 등 동화 원작의 애니메이션들도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숲속으로


눈의 여왕2: 트롤의 마법거울

가수 출신 배우, 새해 활약 예고

혜리·간미연, '하이드 지킬, 나' '킬미, 힐미' 출연

2015년 새해 초 수목드라마에서는 가수 출신 배우들이 활약할 예정이다.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왼쪽 사진**)는 SBS 새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 출연한다.

'애교'로 올 한해 큰 인기를 얻은 혜리는 '하이드 지킬, 나'에서 민우정 역을 맡았다. 20대 초반 대학생이자 작가 지망생으로 똘똘하지만 엉뚱하고 귀여운 인물이다. 현빈이 연기 하는 이중 인격 중 한 명인 로빈에게 애정 공세를 할 예정이다.

혜리는 현재 출연 중인 JTBC 드라마 '선암여고탐정단'에 이어 '하이드 지킬, 나'로 두 번째 연기 도전에 나선다. 혜리의 발랄함이 캐릭터에 생기를 불어 넣을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세' 혜리 뿐만 아니라 현빈·한지민·성준이 출연하는 '하이드 지킬, 나'는 웹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를 원작으로 한 20부작 드라마다.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다. '49일' '야왕' '잘 키운 딸 하나' 등을 연출한 조영광 감독, '청담동 앨리스' 김지운 작가가 함께 제작한다. '피노키오' 후속으로 내년 1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간미연(**오른쪽**)은 MBC 새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에 특별 출연한다.

간미연은 '킬미, 힐미'에서 미스터리한 미녀 역을 맡아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킬미, 힐미'로 배우 신고식을 치르게 된 그는 이미 첫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황정음·박서준이 출연하는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미스터 백' 후속 작으로 내년 1월 7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韓 영화 3년 연속 1억 관객 돌파

지난해보다는 다소 부진한 성적… '명량'이 만회

한국영화가 3년 연속으로 1억 관객을 돌파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영화 누적관객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1억19만808명을 기록했다.



한국영화는 지난 2012년 사상 첫 '1억 관객 시대'를 열었다.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1억 관객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당 평균 2편씩 한국영화를 본 셈이다.

지난해보다 부진했던 한국영화가 올해도 1억 관객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명량'의 역대 최고 흥행 기록 덕택이다. 지난 7월에 개봉한 '명량'은 1760만 관객을 모으며 역대 흥행 신기록을 달성했다.

한국영화의 매출액은 현재까지 7631억원이며 개봉작은 지난해(183편)보다 늘어난 219편이다. 점유율에서는 2011년 이후 줄곧 50%를 넘었으나 올해는 48.9%에 그쳤다.

점유율 51.1%를 차지한 외화의 누적 관객수는 이미 1억명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외화 누적 관객수는 1억469만455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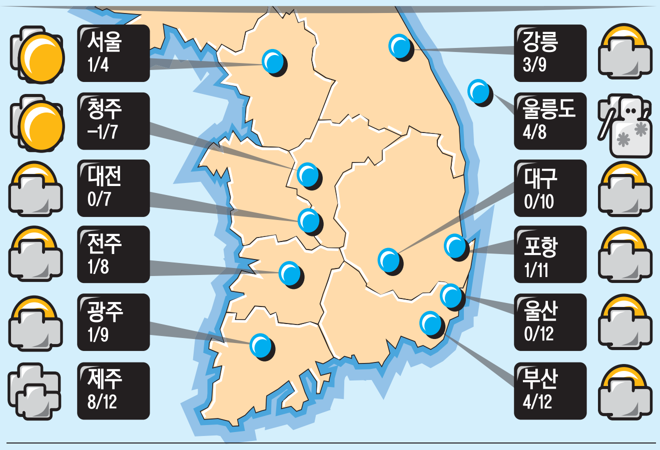
외화 관객수가 1억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고지를 넘어선 '겨울왕국', 그리고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인터스텔라'의 흥행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 한 해 영화를 본 총 관객수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억명을 넘어섰다. 현재 총 관객수는 2억488만5363명이며 매출액은 1조5858만원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12/24水 일출시각 07:44 일몰시각 1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실내가 건조해지면 비강건조증이 생겨 어린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코 밑에 바셀린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6	8		7				
	7		8			3		
	5				8			
	9	7				4	2	
			6				8	
		3			2		9	
				4		2	5	1
		9						4

	8			4	3		1	
						6		
	6	7			9			
	1			5		7	4	
		4		2		3		
	3	5		6			2	
			7			1	6	
		3						
	4		2	8			7	

스도쿠 정답

3	1	4	2	6	9	5	7	8
9	6	8	3	7	5	1	4	2
2	7	5	8	1	4	3	6	9
6	5	2	4	9	8	7	1	3
8	9	7	5	3	1	4	2	6
4	3	1	6	2	7	9	8	5
5	4	3	1	8	2	6	9	7
7	8	6	9	4	3	2	5	1
1	2	9	7	5	6	8	3	4

2	8	9	6	4	3	5	1	7
3	5	1	8	7	2	6	9	4
4	6	7	5	1	9	2	3	8
6	1	2	3	5	8	7	4	9
8	7	4	9	2	1	3	5	6
9	3	5	4	6	7	8	2	1
5	9	8	7	3	4	1	6	2
7	2	3	1	9	6	4	8	5
1	4	6	2	8	5	9	7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짝 없어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받아 새로운 모임 찾아 경험해 보면 도움

Q Hey 캣우먼!
연말이 싫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도 싫고 새해 한 살 더 먹기도 싫고요. 저 포함 세 명이 단짝 친구인데 한동안 세 사람 다 솔로여서 매년 이브는 같이 보냈습니다. 한데 그 중 한 명이 두어달 전 애인이 생기고, 남은 한 명은 어쩌면 최근에 소개팅을 한 남자와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셋 다 묘하게 눈치를 보며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할리갈리

A Hey 할리갈리!
여자들의 우정은 복잡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말도 못하고, 나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기도 꺼려합니다. 여자들의 우정은 공통의 환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그 환경이 달라지면 우정이 자연소멸되기도 합니다. 세 사람은 남자친구가 없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그 우정은 딱 거기까지의 관계였던 겁니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친구라면 어떤 경우가 생겨도, 상처가 될 수 있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약이 있다면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알려줘. 나도 내 나름의 계획을 미리 짜고 하니까." 말은 태연한 척, 센 척 해도 막상 그녀들의 이브계획을 들으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녀들이 나를 동정하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만약 그녀들이 들떠서 말실수를 한다면 속 좁게 원망을 해도 괜찮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그 순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긴장감을 풀어주고 새로운 우정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말 나온 김에 솔로친구들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과의 모임을 찾아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은 막상 물어보니 그녀들은 그 사이 이미 남자들과 어그러지고 그게 부끄러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꿍쳐놓지 말고 터십시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는데… 2016년 경찰공무원과 인연 맺을 듯

Q 엘리 여자 83년 11월 24일 음력 술시

저는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언니도 이혼했으며 남이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환경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집안 사정이 복잡합니다. 만난 남자마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번번이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고 자꾸 어머니와 결혼 문제에 부딪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제 성격이 두루두루 하지 못하다며 집에선 돈 많은 남자나 돌 싱이랑 결혼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하시는데요. 전 현실도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정말 싫거든요. 혹여 제 팔자가 돌 싱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하는 건지 너무 막막하고 힘듭니다.

A 지금은 와 닿지 않을 것이나 '구름에 가린 태양'의 형상이라 마음속에는 무궁한 지혜가 있어 45세 이후 삶이 아주 향기롭습니다. 주변에 남자가 당분간은 귀문살(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의 흉함)이 동하여 배우자감이 나서기는 어렵지만 2016년 개띠와 성혼에 이릅니다. 본인도 이혼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특히나 음력 3월, 4월생은 피하도록 하세요. 천을 귀인(귀인의 도움이 있는 길명)이 있어서 자식은 매우 훌륭한 자녀를 두게 되는 행운은 있습니다. 남편은 경찰공무원을 만나면 딱 인데 천라지망살(하늘과 땅에 그물을 친 것과 같은 것)로 돈 문제로 실패가 따르고 시비구설이 있게 되니 차후에 남편을 위해서 돈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여성의 삶을 '뒤웅박 팔자'라 했습니다. 뒤웅박이란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만 도려내어 뚜껑으로 쓰고 속을 파낸 바가지를 말하는데 부잣집에서는 뒤웅박에 쌀을 담아두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아 두었으므로 뒤웅박이 어떤 집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데서 연유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비유되어 "여자의 인생은 남자 만나기 나름이다" 는 의미에서 여자의 삶을 뒤웅박에 비유했겠지요. 그 때문인지 의사, 검사, 판사 등 소위 '사'짜가 붙는 남자들의 주가는 항상 상한가를 치고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선 열쇠가 서너 개는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할지라도 얌전한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도 있듯이 자신을 성숙시키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24일 (음 11월 3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배우자 의견 따르면 편안하다. **60년생** 말썽 있는 자리는 빨리 짐싸라~. **72년생** 찾던 길을 어렵게 찾는다. **84년생** 친구에 대못박는 말은 삼가라.

소 — **49년생** 삐딱한 노인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 **61년생** 배우자 애교에 헷갈린다. **73년생** 서툰 듯 색다른 아이디어 주목~. **85년생** 고난 속 환호할 일 있다.

호랑이 — **50년생** 불의에 눈감으면 후회한다. **62년생** 두 갈래 길에서 행복한 고민~. **74년생** 통 큰 양보가 큰 선물이 된다. **86년생** 슬럼프 딛고 화려한 부활에 야호~.

토끼 — **51년생** 잘난 사람과 비교는 말라. **63년생** 의도된 갑질은 후회만 남는다. **75년생** 집안단속 한 다음 밖을 보라. **87년생** 수비보단 공격이 더 이롭다.

용 — **52년생** 배추가 시래기가 된 격이다. **64년생** 꼬인 문제는 대화로 풀어라. **76년생** 경쟁자 적으로 몰면 손실이 크다. **88년생** 친구의 고민을 두고 말장난 말라.

뱀 — **53년생** 남의 일에 기웃거리지 말라. **65년생** 움직일 여건은 좋아진다. **77년생** 우울한 예보에 힘들고 긴 하루~. **89년생**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훨씬 좋다.

말 — **42년생**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54년생** 동시다발 악재를 조심할 것. **66년생** 돈에 흔들리면 명예도 실리도 잃는다. **78년생** 현장문제는 발로 뛰며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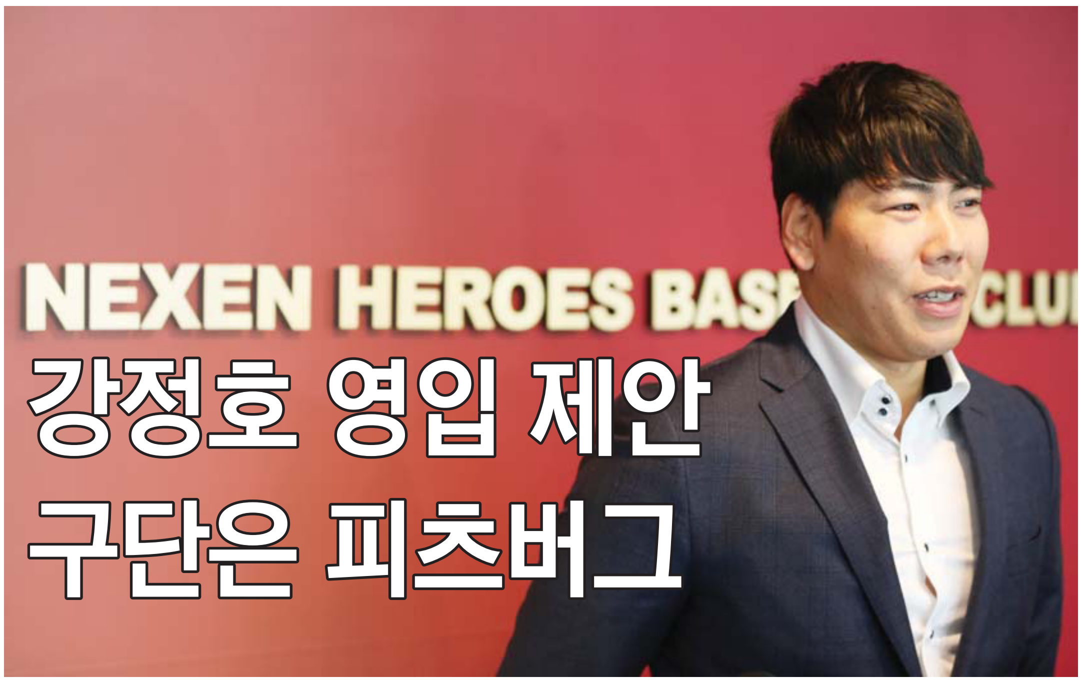
양 — **43년생** 대접받으려면 지갑 열어라. **55년생** 경쟁에 빠지면 무리수 남발한다. **67년생** 도를 넘은 친절은 삼가라. **79년생** 고생한 일은 달콤한 결과 선물한다.

원숭이 — **44년생** 악재가 호재로 바뀐다. **56년생** 쉬면서 심신을 자유롭게 하라. **68년생** 모임 가면 가슴이 뜨거운 울림 있다. **80년생** 편안한 일만 하려는 생각 버려라.

닭 — **45년생** 가족의 고충을 생각할 것. **57년생** 충고를 말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69년생** 일이 꼬이면 멘토를 만나라. **81년생** 작심한 일은 장애물이 생긴다.

개 — **46년생** 분수를 알면 욕됨이 없다. **58년생** 불청객은 떠나니 걱정하지 말라. **70년생** 힘든 과제를 어렵게 해낸다. **82년생** 운기가 열렸으니 자신감 가져라.

돼지 — **47년생** 오해는 그 자리서 풀어라. **59년생** 사활에 걸린 일에 변수가 생긴다. **71년생** 애매한 일은 함부로 동조 말라. **83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강정호 영입 제안 구단은 피츠버그

2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넥센 히어로즈의 강정호. /연합뉴스

내년 1월 21일까지 독점으로 계약 교섭

넥센 히어로즈의 강정호(27)에게 500만2015 달러(약 55억원)를 베팅하며 영입 의사를 밝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한국시간) 피츠버그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정호에 대한 교섭권을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츠버그 구단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내년 1월 20일 오후 5시,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까지 강정호와 독점으로 계약 교섭을 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피츠버그 구단은 포스팅 금액을 돌려받고 강정호는 일본프로야구 진출을 모색하거나 넥센에 잔류하게 된다.

미국 CBS스포츠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존 헤이먼은 관련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최초로 보도하며 놀라운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피츠버그는 강정호에 대한 입찰에 나설 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유격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피츠버그의 내야진이 외형상 무척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헤이먼은 "피츠버그는 유격수 조디 머서를 뒷받침할 백업 유격수 숀 로드리게스를 보유하고 있고 2루에는 닐 워커, 3루에는 조시 해리슨이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시즌 한국프로야구에서 117경기를 뛰면서 40홈런을 날린 강정호의 파워를 고려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츠버그가 강정호 영입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강정호는 올 시즌 넥센에서 117경기를 뛰면서 타율 0.356에 40홈런, 117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최근 목동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야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며 "처음 시작은 유격수로 하고 싶다.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2루보다는 더 편한 3루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지동원, 아우크스부르크로

홍정호와 한솥밥…"팀 목표 이룰 수 있게 일조"

독일 프로축구 도르트문트 소속인 지동원(23·사진)이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2일 "지동원과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며 "도르트문트와 함께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도르트문트 역시 지동원을 아우크스부르크로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동원은 앞서 아우크스부르크에 몸담은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선덜랜드(잉글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 임대된 그는 17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으며 팀의 강등권 탈출에 앞장섰다. 선덜랜드에 복귀하고서 제자리를 잡지 못한 지동원은 올해 1월 도르트문트로 완전 이적했지만 리그 경기에서 한 차례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아우크스부르크로 단기 임대를 가 12경기에 나서 1골을 기록했다.



도르트문트는 올해 분데스리가 18개 구단 가운데 강등권인 17위로 처지며 출전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정규리그 6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선수로는 수비수 홍정호(25)가 몸담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이로써 세 번째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유니폼을 입게 된 지동원은 "전반기 부상 때문에 원하는 대로 뛰지 못했는데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을 다시 입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팀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밝혔다.

슈테판 로이터 아우크스부르크 사장은 "우리는 지동원을 잘 알고 지동원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며 "지동원이 우리 팀에서 보여준 최고의 기량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축구연맹 신뢰회복 노력에 화답"

이재명 성남 구단주, 징계 재심 청구 취소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불복해 냈던 재심 청구를 23일 취소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프로축구 K리그의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승부 조작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이달 초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시장이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22일 오후 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이 시청을 방문해 이 시장과 면담하고 축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한 사무총장은 양측의 갈등이 길어지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하고 징계 재심 신청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징계 사유 부당성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보다 연맹의 신뢰회복 노력에 화답하는 것이 한국축구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재심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김남일 K리그 떠나 일본 간다

교토 상가로 이적할 듯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미드필더 김남일(37·사진)이 일본프로축구 J리그로 이적한다.

2014시즌 전북에 입단해 팀의 K리그 우승에 힘을 보탠 김남일은 이번 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그는 일본 J리그 2부 팀인 교토 상가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관계자는 "이달 초 구단과 일본 이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우리 팀에서도 김남일과 함께하고자 최대한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J리그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남일은 이



번 시즌 K리그에서 두 골을 넣으며 전성기 시절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9월 경남FC와의 경기에서는 K리그에서 10년 만에 골을 터뜨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3일

전자랜드	26	17	27	30	100
삼성	12	14	7	13	46

프로배구 전적 23일

흥국생명	0	3	GS칼텍스
대한항공	1	3	우리카드